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30호 【루계 제24378호】 주체102(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께

가장 존경하는 김정은최고사령관각하

조선과의 친선협회는 올해에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영광》이라는 주제의 국제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력사에 전무후무한 무적필승의 최강군으로 키우시였습니다.

뛰여난 군사적예지를 천품으로 지니신 그이께서는 총대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수 있다는것을 밝히시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도 선군정치를 확고히 펼치시였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대표들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생애와 업적을 수놓으신데 대하여 그리고 각하께서 《마식령속도》로 사회주의건설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데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습니다.

세계는 주체의 조국을 붉은기의 성새로, 억압받는 인민들의 희망으로, 도덕있고 고상한 인류의 보호자로 우러러보고있습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는 서방언론들의 비방중상, 제국주의자들의 책동과 음모로부터 귀국을 옹위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릴것이며 문화와 외교, 체육, 과학, 경제분야에서 더 많은 교류를 실현시킬것입니다.

저희들은 당신의 령도밑에 조선이 세계의 많은 도시와 마을들에 친근한 벗들을 둔 강력하고 단결된 나라로 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승리만을 이룩하시기를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대원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김정은최고사령관 만세!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
주체102(2013)년 11월 16일 쾰른

사 설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관심속에 얼마전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하게 열린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이후 온 나라에는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총공격전에서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나가며 누구나 다 새 기술의 창조자, 혁신자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기술혁명수행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힘있게 벌어진 모범기술혁신공장(직장, 작업반)칭호쟁취운동을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높은 단계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근에 모든 부문을 과학화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선진문명국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과학기술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한다. 정보산업의 시대에 과학기술인재는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나라와 민족의 재부로 된다.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은 광범한 대중이 기술혁신의 주인, 새 기술의 창조자로 되여 지식경제강국건설에 힘있게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중요한 고리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누구나 진지하게 사색하고 탐구의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울 때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풀려나갈수 있다. 그 과정에 우리 당이 바라고 인민들이 사랑하는 발명가, 창의고안명수들이 자라나고 우리 조국은 지식과 기술로 활력있게 전진하게 될것이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인민군군인들처럼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단숨에의 기상으로 힘있게 전진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최상의 수준에서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즉시에 집행하는 기풍이 확고히 서있다. 단숨에, 이것은 과학기술적측면에서도, 질적측면에서도, 속도에서도 최첨단을 보장하는 인민군대의 투쟁정신이며 투쟁기풍이다. 모든 장령, 군관, 병사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맨앞장에서 결사관철해나가고있는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과 기풍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우리가 인민군군인들처럼 결사관철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억세게 투쟁해나갈때 경제강국건설과 선진문명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게 된다는것은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확증된 진리이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에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기술개건, 현대화목표를 바로 정하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주요생산공정과 설비의 주체화, 현대화, CNC화, 무인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중요경제기술지표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있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도 그러하지만 경제강국, 선진문명국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안받침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이 운동의 성패도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일군들은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을 적극 벌릴데 대한 당의 조치에 담겨진 숭고한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확고한 과학기술중시관점과 립장에서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과 옳은 방법론을 세우고 광범한 대중을 이 운동에 적극 참가시켜야 한다.

대중은 기술의 주인이며 창조자이다. 매우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있는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은 몇몇 일군이나 기술자, 기능공들이 아니라 책임일군들이 기발을 들고나서고 모든 근로자들이 떨쳐나설 때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올해에 진행된 공화국창건 65돐기념 4.15기술혁신돌격대들간의 전국기술혁신경기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중앙정보통신국, 평양326전선공장, 평안북도정보통신국, 평천고려약공장, 문천식료공장, 순천제약공장, 황주군농기계작업소를 비롯하여 책임일군들이 기술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가고있는 여러 단위들의 경험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모든 단위에서는 이 단위들에서처럼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의 불길높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나가며 누구나 다 새 기술의 창조자, 혁신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광범한 군중을 이 운동에 적극 인입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속에서 창의고안명수, 발명가가 많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이 은을 내게 하려면 생산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생산이 하나로 밀착되고있는 오늘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생산자들이 창조적으로 협조하고 련계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것은 해당 단위의 기술혁신사업, 다시말하여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필수적이고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생산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속에서 제기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적극 지지해주고 완성해나가도록 밀어주며 그들과 힘을 합쳐 생산에서 걸리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술혁신돌격대활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특히 중요하다.

4.15기술혁신돌격대,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와 같은 기술혁신돌격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그 조직을 발기하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당의 믿음직한 기술혁명과업수행의 선구자들로서 과학자,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을 망라하고있다.

지금 기술혁신돌격대는 생산자들과 힘을 합쳐 생산과 건설에서 걸리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선진문명국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적지 않게 풀고있다.

전체 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기술혁신돌격대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감으로써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을 앞장에서 끌고나가는 기술혁명과업수행의 선구자로서의 영예를 빛내여나가야 한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에서는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을 당의 의도에 맞게 잘 조직진행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총련맹에서는 총련맹이 과학기술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을 높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한몫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대로 당의 지도밑에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과 관련한 추천과 판정, 심의 그리고 평가사업을 원칙적으로, 객관적으로 의의있게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을 당적으로 적극 밀어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벌어지는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은 경제강국건설과 선진문명국건설을 위하여 당조직들이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틀어쥐고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할 과학기술사업의 하나이다.

당조직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해당 단위들에서 이 운동과 관련한 사업내용들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기술혁명결의목표에 잘 반영하여 철저히 집행해나가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이 철두철미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 관철에 이바지하는 전군중적, 전사회적운동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의 불길은 료원의 불길처럼 인민경제부문과 문화건설분야의 많은 단위들에 급속히 퍼져나가고있으며 그와 더불어 온 나라에는 과학기술열풍이 더욱 거세차게 일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과학기술중시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투쟁해나가야 할것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도이췰란드에서 국제회의 진행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영광》이라는 주제의 국제회의가 16일 도이췰란드 쾰른시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회의장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와 산하 각국 지부대표들 등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협회위원장은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 성장하신 김정일각하는 쪽잠과 줴기밥으로 쉬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신 경허한 위인이시다, 그이의 선군혁명업적은 백두의 기상을 지니신 김정은동지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있다고 말하였다.

스위스지부 대표는 김정일각하께서 선군정치를 펼치심으로써 조선인민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침략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수 있었다, 강철의 령장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조선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고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도이췰란드, 벨지끄, 에스빠냐 지부대표들은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2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올해에도 조선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는 길에서 자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찬양하였다.

뽈스까지부 대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2월 24일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뜻깊은 날이다.

김정일동지는 세계반제투쟁의 위대한 령도자이시였다.

그이의 불멸의 헌신이 있어 조선인민군은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과 독립,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는 불패의 무력으로 강화발전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건축물공사 기본적으로 완성, 지대정리 및 원림형성 활발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 관철을 위한 최후공격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서 건설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스키장건설장에서 건축물들의 내외부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나고 지대정리와 원림형성이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스키장운영을 위한 삭도와 눈포시설공사가 적극 추진되고있다.

건설장적으로 전반적인 건축물들의 외부가 손색없이 단장되고 건물내부의 미장과 타일붙이기, 건구공사들도 기본적으로 완성됨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스키장건설을 전부 완공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건설장에서는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 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원림형성과 지대정리가 립체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서는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의 면모가 확연히 드러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호소문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몇달 안되는 짧은 기간에 마식령전역의 전반적인 건설대상공사들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는 이 성과는 부강조국건설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들에게 새로운 승리의 신심과 고무적힘을 안겨주는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벌려 마식령스키장건설을 올해안으로 무조건 끝내자!〉, 이것이 마식령스키장건설에 떨쳐나선 군인들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불철주야로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얼마전에 또다시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찾으시여 공사정형을 세심히 료해하시고 마식령스키장을 세상에 둘도 없는 스키장으로 훌륭히 완공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스키장건설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의 믿음을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고 짧은 기간에 전격전, 립체전을 벌리며 비상한 건설속도를 창조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총공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건설지휘부와 모든 시공단위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여주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공사에 필요한 마감자재를 시공에 확고히 앞세워 보장하기 위해 전투지휘를 패기있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애국의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마식령속도》창조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는 여러 단위 군인건설자들에 의해 스키장의 전반적인 건축물내외부공사들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스키장건설의 주타격대상이였던 규모가 큰 여러 휴식장들의 내외부공사가 완공되였다.

여러 부대들이 추진한 방대한 건물골조공사에 이어 휴식장건물들의 마감공사를 맡은 조선인민군 리철훈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공사과정에 혁명적군인정신과 천년책임, 만년보증이라는 애국의 마음을 지니고 합리적인 기공구를 효과있게 리용하면서 여러가지 건재로 시공을 잘하고 휴식장들의 외부와 내부를 손색없이 완성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부대아래 여러 구분대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의 혁명적열정에 의하여 해발고가 제일 높은 대화봉에 자리잡은 휴식장과 스키주로중간계선의 휴식장, 초중급스키 및 썰매주로주변의 휴식장들과 삭도 및 스키주로감시소들이 산골맛이 나고 자연환경과 어울리게 꾸려져 스키장의 면모를 더욱 이채롭게 하고있다.

조선인민군 김명호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도 호텔차고와 변전소를 비롯한 여러 건축물들의 내외부공사와 함께 건설장적으로 주타격대상으로 되였던 눈포용저수지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부대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마식령속도》창조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을 심장깊이 새기고 작업량이 방대한 건설대상들을 맡은 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공법을 련이어 받아들이고 유압식굴착기와 착정기를 비롯한 중기계들의 가동률도 높여 건설장의 전반적인 건축물공사를 마감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인민군 서국옥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도 자기 단위가 맡은 스키장의 여러 건축물마감공사과정에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마식령속도》창조의 나날에 방대한 스키주로와 눈포용저수지, 삭도기초공사에서 혁혁한 위훈을 떨친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현지말씀을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안고 새롭게 제기된 봉사건물과 연유공급소건물을 비롯한 여러 건축물공사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집단적혁신을 창조한 이곳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떠받들려 부대가 맡은 여러 건물 및 시설물들은 스키장의 특성에 맞게 손색없이 완성되였다.

조선인민군 오병철소속부대와 신기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도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단위들이 맡은 건축물공사들을 끝내는 자랑을 떨치였다.

조선인민군 오병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스키장문주와 종업원살림집건설을 비롯한 부대가 맡은 대상들이 여러 개소에 분산되여있는 조건에 맞게 각이한 지형에 따르는 공사방법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오수정화장과 규모가 큰 여러 건물 및 암거공사를 빠른 속도로 끝냈다.

조선인민군 신기철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도 높은 산정에서의 불리한 기후조건을 이겨내면서 과감한 공격정신을 발휘하여 대화봉주변의 시설들과 부대가 맡은 눈포관로공사를 남먼저 결속하였다.

조선인민군 김효남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도 건설장적으로 규모가 제일 큰 눈포용저수지건설을 기본적으로 끝내고 눈포관로공사에서 계속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완공의 날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여러 부대 군인건설자들의 혁명적기세에 떠받들려 수십동의 종업원살림집들과 편의봉사건물, 유치원과 탁아소건물의 내외부공사가 결속된 건설장에서 삭도와 눈포관로설치작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모든 부대정치부들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건설장에 여러차례 찾아오시여 주신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스키장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부대, 구분대별기동예술선동과 정치사업의 도수를 더욱 높여 건설장의 분위기를 끊임없이 고조시키고있다.

《마식령속도》창조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스키장건설장으로는 성, 중앙기관들과 해당 공장, 기업소들에서 마감공사에 쓰일 건설자재를 보내오고있으며 여러 도들에서 원림형성에 필요한 많은 나무를 보내주고있다.

본사기자 지원철
본사기자 전경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활성화하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호소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기업소참모부에서는 생산지휘부를 전투현장으로 옮기고 일군들이 각 탄광들과 갱막장들에 내려가 생산지휘도 하고 탄부들과 일도 하면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은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이 타번지고있는 갱막장들에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탄부들모두가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이와 함께 매장량이 풍부한 새 구역개발을 적극 내밀어 석탄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갈수 있는 전망을 확고히 열어놓았다.

련합기업소에서는 탄광들의 생산실태와 설비, 자재, 부속품보장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사업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석탄생산의 앞장에는 자강도공급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서있다. 탄광에서는 중대별사회주의증산경쟁을 의의있게 조직하고 총화와 평가사업을 잘하여 모든 중대가 매일 자기앞에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2갱, 3갱, 청년갱들에서는 탄상조건에 맞는 여러가지 합리적인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운반능력을 높여 매일 계획보다 많은 석탄을 생산하는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무진대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공업의 식량인 석탄생산을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석탄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이곳 탄광의 일군들은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소개선전하는 사업도 잘해나감으로써 탄부들의 생산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특히 탄광에서는 1갱, 2갱을 비롯하여 생산량이 많은 갱들에 력량을 집중해주어 생산실적을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개천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높이 세운 석탄생산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탄부가족들도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탄광의 석탄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조양탄광, 봉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석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더 많은 유색금속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우리 혁명의 자주적립장을 밝힌 력사적인 회의

남패자회의 75돐을 맞으며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력사적인 남패자회의 75돐을 맞이하게 된다.

주체의 기치,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혁명앞에 가로놓였던 난관을 타개하고 고난의 행군과 무산지구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짓게 한 남패자회의,

세월은 멀리 흘렀어도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그 어떤 어려운 난관앞에서도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며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으로 설레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은 탁월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 강철의 령장이시였을뿐아니라 신념과 의지의 제일강자, 제일배짱가이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남패자회의를 전후한 시기 우리 혁명앞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겹겹이 포위하고 대규모적인 《토벌》공세를 기도하는 동시에 혁명조직과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미쳐날뛰고있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에 전례없는 장애가 조성되였으며 도처에서 혁명조직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혁명군중들이 검거투옥, 학살되고있었다.

가는 곳마다 일제가 조작한 《귀순공작반》, 《선무반》과 같은 간첩주구단체가 날뛰고있었으며 마을과 산판들에는 장사군, 사냥군으로 가장한 주구들과 그밖의 여러가지 너울을 쓴 밀정들이 욱실거렸다.

좌경모험주의의 산물인 열하원정의 후과도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동북항일련군에 소속된 적지 않은 부대들이 원정과정에 많은 유생력량을 잃었고 일부 무장부대들에서는 도주자와 귀순자들이 생기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하루빨리 적의 공세에 대처할수 있는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안과 좌경모험주의의 후과를 가시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혁명은 엄중한 위기에 직면할수 있었다.

사느냐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고 마느냐 하는 준엄했던 력사의 그 시기에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는 남패자에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기 위한 력사적인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주체27(1938)년 11월 25일부터 10여일간에 걸쳐 몽강현의 남패자에 자리잡은 혁명의 사령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먼저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도 명확히 제시한바와 같이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자기의 힘과 자기 인민의 힘을 굳게 믿게 되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는 혁명로선과 방침을 세울수 있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싸울수 있다. 바로 이러한 주견과 립장을 가지고 혁명을 하여야 자기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세계혁명에도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혁명의 자주적립장에 관한 문제였으며 열하원정의 엄중한 후과를 가시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회의에서 토의결정된 정세판단을 옳게 할데 대한 문제, 적들의 대규모공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대에 진출하여 군사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릴데 대한 문제,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정비하고 대중정치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릴데 대한 문제들에도 우리 수령님의 확고한 자주적립장이 천명되여있었다.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는 길은 오직 주체의 기치,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 때만이 반드시 이룩될수 있다는 철의 진리가 온 장내에 빛발쳤다.

수만명의 적들이 포위진을 치고있는 그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시며 조선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회의참가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남패자회의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투쟁과업은 조성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확고한 자주적립장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끌어나갈수 있게 한 강령적지침이였다.

적들의 포위진을 뚫고 남패자로부터 북대정자에 이르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고난의 행군은 참으로 가혹하고 준엄한 시련의 혈로였다.

당시 대부대가 국내진출을 진행한다는것은 하나의 큰 모험이였다. 그만큼 적들의 방대한 무력이 앞을 가로막고 기회를 노리고있었던것이다.

이것은 조성된 정세로 보아 누구도 감히 생각할수 없는 일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인이라는 자주적립장을 지니시고 죽음도 각오해야 하는 이 준엄한 행군을 결단코 단행할 대용단을 내리시였다.

밀영에 머물러있으면 한해겨울을 무사히 보낼수도 있고 력량도 보존할수 있었지만 이 길을 헤치고 조국으로 가야 혁명앞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할수 있기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남패자회의에서 조국에로의 행군을 엄숙히 선언하시였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잊을수 없는 그 나날들에 대하여 남패자회의를 계기로 조선혁명은 질적으로 한걸음 더 비약하였다. 남패자회의에서 중요한 로선적문제가 채택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10겹, 20겹으로 포위하고있던 그 준엄한 환경속에서 장백의 설령과 설원을 헤치고 조국에 나가서 총소리를 울리지 못했을것이다라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진정 남패자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조선혁명은 자주라는 자기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잡고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다.

자주로 고동치는 남패자회의정신이 있었기에 나무껍질을 우려먹으면서라도 조국으로 진군하자고 웨치던 항일유격대원들이 자연과의 투쟁, 극심한 식량난과 피로와의 투쟁, 무서운 병마와의 투쟁, 간악한 적들과의 투쟁,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자신과의 투쟁이 하나로 엉켜진 가렬처절했던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자가 되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혁명앞에 난관과 시련이 중첩될 때마다 주체의 기치, 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여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동지,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통은 세기를 이어 더욱 빛나고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들을 혁명적락관주의와 승리에 대한 신념으로 더욱 세차게 고동치게 하고있다.

백두에서 휘날린 자주의 기치는 희세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길우에서 더욱 세차게 나래쳤다.

흘러온 년대기마다에 그러했지만 특히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조국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엄혹한 시련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는 혁명적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한길로 억척같이 나아가시였다.

남패자회의 64돐이 되는 뜻깊은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확언하시였다.

나는 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울 때마다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되새겨보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군 합니다. 오늘도 회고록영화문헌을 보면서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승리에 대한 드놀지 않는 신념과 배짱, 불굴의 혁명정신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으며 앞으로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나서도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였습니다. …

오직 주체의 한길로만 꿋꿋이 걸어가실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추켜드신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의 대를 억척같이 심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은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여오신 주체의 길, 선군의 길을 끝까지 이어가실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끊임없는 선군혁명령도의 거룩한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오늘 천만군민은 사상과 령도, 덕망에 있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또 한분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주체의 기치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불타는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더 잘 받들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을 더욱 높이 떨쳐갈것이다.

채 히 성

따사로운 해빛

선군혁명령도의 나날에

주체86(1997)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인민군부대를 현지시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병실에도 들리시여 군인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밖으로 나오시여 병실의 불빛이 밝지 못한데 대하여 마음쓰시며 군인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지장이 있겠다고 근심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부대지휘관들은 하나의 불빛을 보시고도 군인들의 생활에 대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에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였다.

잠시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지휘관에게 자신께서 풍력발전기를 보내주겠으니 그것을 설치하여 군인들이 불밝은 병실에서 텔레비죤을 보게 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변의 산봉우리들을 하나하나 꼽아가시며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자리까지 잡아주시고서야 부대를 떠나시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군인들은 밝은 불빛속에서 문화정서생활을 꽃피우게 되였다.

병실에 흐르는 밝은 불빛, 그것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병사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보살펴주는 따사로운 해빛이였다.

군인들의 위훈을 빛내주시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인민군부대에서 건설한 발전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발전소의 능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언제를 내리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며 어느 한 곳으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거기에는 아주 묘하게 생긴 바위가 우뚝 솟아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참 묘하게 생겼다고 말씀하시자 부대지휘관이 그이께 발전소를 건설할 때 군인들이 이 바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심을 돌려왔기때문에 본래 있던 모양대로 보존할수 있었다고 보고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주 잘했다고 치하해주시면서 발전소언제옆에 있는 큰 자연바위에 《강행군》이라는 글자를 새겨넣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러면 먼 후날 후대들이 그 글발을 보면서 우리 혁명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인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인민군군인들이 이런 훌륭한 발전소를 일떠세웠다고 감회깊이 추억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강행군》, 이 글발속에 발전소를 일떠세운 우리 군인들의 위훈을 더욱 빛내여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본사기자 림정호

백두의 혁명전통이 마련되던 그 나날의 뜻깊은 사연을 길이 전하는 사령부자리를 찾은 답사자들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해결해주시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주체73(1984)년 4월 중순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해지구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때에 있은 일이다.

어느날 그이께서는 강원도안의 여러 부문을 돌아보신데 이어 함경남도의 사업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원산을 떠나 함흥쪽으로 향하시였다.

기름진 협동벌들과 아담하게 들어앉은 여러 마을들을 좌우에 끼고 달리던 승용차가 한 읍소재지를 얼마간 지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운전사에게 승용차를 멈추게 하시였다.

이윽고 승용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방금 지나온 읍거리쪽으로 시선을 보내시였다.

거리를 따라 줄지어선 고층살림집들이며 상점, 식당, 목욕탕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 나지막한 산비탈에 규모있게 들어앉은 아담한 문화주택들…

한동안 읍거리를 유심히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직하신 어조로 아직도 단칸살림집들이 많다고 하시며 말끝을 흐리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동행하던 일군들은 의아한 눈길로 읍거리를 눈여겨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보아야 단칸살림집은 있는것 같지 않았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낡은 살림집들은 더러 있으나 단칸살림집은 있는것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읍거리의 한쪽을 가리키시며 저 굴뚝들을 보라고, 드문드문 가다가 한채에 두개짜리가 있지 않는가고 하시며 우리야 인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데 잘된것만 보지 말고 안된것도 볼줄 알아야 한다고 조용히 이르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언제면 우리 인민들에게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다 지어주겠는가고 늘 생각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어떤 때는 기쁜 일이 있어서 웃음이 나가다가도 아직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풀어주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두고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현지지도의 길에서 얼핏 보신 살림집들을 놓고도 이렇듯 크나큰 심려의 말씀을 하시겠는가.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려는 생각으로 세계적으로 주택문제를 완전히 푼 나라는 아직 없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우리도 할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포자기이며 그만하면 괜찮다고 위안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고자대이라고, 이 경우나 저 경우나 다 혁명가들의 립장과는 인연이 없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물론 우리 나라는 3년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벽돌 한장, 기와 한장성 한것없이 다 파괴되였지만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로 전후 짧은 기간에 도시와 마을을 복구하고 그후 계속 살림집건설에 큰 힘을 돌려온 결과 일부 나라들에서처럼 살림집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만족할 근거는 조금도 없다. 지난 기간 집을 많이 지었지만 모든 인민들이 다 현대적인 살림집을 쓰고살게 하자면 아직 많은 건설을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이 결심하고 달라붙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은 이름 못할 격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말씀에는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자신께서 몸소 맡아안으시고 기어이 해결하시려는 그이의 원대한 구상과 확고한 결심이 담겨져있었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나 일군들을 또다시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한다, 나는 평양시뿐아니라 도소재지와 군소재지, 로동자구와 농촌들 그리고 분계연선에 이르기까지 전국각지에 해마다 수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일떠세우자고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해결한다는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결심해서 못해낸 일이 없었다, 집은 세멘트와 벽돌, 강재만 있으면 얼마든지 건설할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여러개의 씨리카트벽돌공장과 세멘트공장, 강철공장과 늪창공장, 판유리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건재생산기지들을 당에서 새로 꾸려 살림집건설을 한번 본때있게 내밀자고 한다, 이렇게 하여 나는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가까운 몇해사이에 완전히 해결할 결심이다고 강조하시였다.

그후 주체73(1984)년 4월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의 협의회를 몸소 조직하시고 세멘트공장과 강철공장, 부재공장과 씨리카트벽돌공장을 비롯한 새로운 현대적인 건재생산기지들을 건설할데 대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불과 몇해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대규모의 새로운 건재생산기지가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일떠서게 되였으며 그것은 우리 나라 살림집건설에서 새로운 변혁을 일으킬수 있게 한 근본담보로 되였다.

최 기 만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워

개성시 림한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수령결사옹위의 산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정치사업계획을 주별, 월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그리고 리당일군들부터 가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을 수록한 도서들과 귀감자료들을 깊이 연구학습한데 기초하여 농장원들에게 적극 해설선전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 들끓는 현장에 나간 한 일군은 작업의 휴식시간을 리용하여 항일의 나날 한몸이 그대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시여 사령관동지를 한목숨바쳐 보위하신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실천적성과로 더 잘 받들어갈 불같은 결의밑에 당면한 농사일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류승균

과학기술은 국가발전의 천하지대본이다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된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획기적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과학기술중시를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였으며 당과 수령의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 뛰여난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지닌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드높은 각오와 혁명적의지가 남김없이 떨쳐졌다.

대회에서는 온 나라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에 용약 뛰여들어 력사가 지켜보는 오늘의 책임적인 투쟁에서 조선사람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한사람같이 싸우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과학기술을 최대의 국사로, 국가발전의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는것이 호소문에 담겨져있는 중요한 정신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국력이 결정되고 나라와 민족의 지위와 전도가 좌우되게 됩니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모든 부문의 발전을 추동하며 과학기술의 높이에 의하여 사회전반의 발전높이와 속도가 규제되는 시대이다.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적위력도 최신과학기술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더 높이 발휘될수 있다.

과학기술은 국력의 기초이며 민족번영의 원동력이다. 일찌기 국가와 사회발전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환히 꿰뚫어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기술을 중시할데 대한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 커다란 힘을 넣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첨단과학기술분야들이 개척되고 연구개발핵심력량이 자라났으며 과학기술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주체화, 현대화, CNC화가 힘있게 추진되였으며 우리의 과학기술이 새로운 높은 단계, 첨단돌파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뜻을 이어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과학기술통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보다 큰 박차를 가하여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에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이 있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모든 부문을 강성국가의 체모에 맞게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인민들의 리상과 념원이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모든 면에서 가장 발전되고 선진적인 나라이다. 정치와 군사분야뿐아니라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의 사업이 철저히 과학적원리와 방법론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빠른 발전을 이룩해나가는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강성국가이다. 강성국가에서는 경제관리방법도 객관적경제법칙과 현대적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도 하고 관리도 하는 체계와 방법으로 되여야 하며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업으로부터 교육과 보건, 체육발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이 과학적인 기초우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과학기술강국이자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이다. 지금 우리 당은 이미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하여 최단기간내에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높이에 올려세우고 모든 부문을 과학화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당당한 과학기술강국,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빛내일 웅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모든 사업을 과학적기초우에서 설계하고 작전하며 과학적원리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해나가는 기풍이 확립되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생산과 관리를 현대화, 과학화하는데 힘을 넣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먼 앞날의 일도 아니다. 지금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모든 부문을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는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생산체계가 확립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생산기지들이 도처에 일떠서고있다. 기업관리와 경영관리의 정보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콤퓨터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원격교육체계와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구축되여 활발히 운영되고있다. 체육강국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 산림조성과 잔디심기를 비롯한 모든 사업이 철저히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되고있다.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에 대한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승리만을 떨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오늘날 세계제패를 실현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더욱더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과학기술로 다른 나라들을 누르고 틀어쥐자는것이 현대제국주의자들의 오만한 사고관점이며 지배주의적인 전략이다. 선군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강성국가에로 나아가는 우리 나라가 그 주되는 과녁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해 정치적압력과 군사적위협공갈, 심리모략전을 강화하는것과 동시에 과학기술적봉쇄와 제재정책을 강행하고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강자가 되고 뒤떨어지면 약자가 되기마련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과학기술독점과 봉쇄를 격파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는 길은 자체의 과학기술발전에 큰 힘을 넣는데 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두려울것이 없고 무슨 일이나 자기의 결심과 의도에 따라 배심있게 내밀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과학기술적원조와 도움에 기대를 가지거나 의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언제 가도 선진국대렬에 들어설수 없고 정치경제적예속에서 벗어날수 없다.

과학기술적우세는 결코 제국주의의 독점물이 아니다. 최첨단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인공지구위성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성과적으로 쏴올린 우리의 우주과학자들의 영웅적장거는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해나가는 선군조선의 불패의 기상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우리가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쥠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과학기술독점정책에 거대한 파렬구가 생기고 세계에 대한 그들의 경제적, 과학기술적지배전략이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지금 진보적인류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미국의 압력과 공갈에 당당히 맞서나가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큰 나라들의 눈치만 보면서 사는것을 불가피한것으로 여겨오던 작은 나라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엎게 한다고 하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과 로선이 있고 숭고한 혁명정신과 강한 민족적자존심, 비상한 창조적지혜와 불타는 애국심을 지닌 과학자, 기술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는 제국주의와의 정치, 군사적대결에서뿐아니라 과학기술의 대결에서도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힘있는 추동력이다.

오늘 우리는 선군조선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거창한 변혁과 비약의 시대에 살고있다. 남들이 걸어온 발전단계들을 도약하며 년대와 년대를 주름잡는 기적을 창조해나가야 하는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혁명실천의 절박한 요구이다.

시대를 대표하고 추동하는 새로운 진군속도의 창조는 주관적욕망이나 열성만으로는 해결될수 없다. 지난날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현대과학기술을 떠나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는것이 오늘의 시대이다. 우리가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 에네르기문제를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하자고 하여도 과학기술을 틀어쥐여야 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을 활성화하고 지식경제강국의 면모를 갖추자고 하여도 최첨단돌파전을 드세차게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무슨 문제나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과학기술에 창조와 혁신의 묘술이 있고 비약의 열쇠가 있다.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세인을 놀래우는 건설속도를 창조해나가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의 투쟁경험이 이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불과 몇개월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와 같은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봉사기지들을 일떠세울수 있은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의 군인건설자들은 무슨 문제가 제기되여도 과학기술을 중시했고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활발히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 건설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기발한 착상과 묘안들이 수많이 제기되였다. 선군조선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야말로 가장 혁명적인 우리의 사상과 신념, 불굴의 정신력과 열렬한 애국심에 과학기술이 결합될 때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없으며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새겨주는 력사의 증견자이다.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없으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도 이룩할수 없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을 최대의 국사로, 국가발전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과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높은 사업실적으로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리 강 철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한 자랑찬 해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또다시 전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펴주신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속에 농업전선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난 주체102(2013)년!

올해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여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새로운 대고조의 불길, 비약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올해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농업성과 각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은 지난해 논벼농사에서 수확고가 높은 품종들의 재배면적을 대폭 늘인것을 비롯하여 올해에 다수확품종의 종자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년초부터 적극 내밀었다.

각지 농촌들에서는 몇해째 시험을 거쳐 자기 고장의 기후와 지리적조건에 알맞는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선택하고 올해농사에 받아들여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근로자들도 올해 알곡증산의 예비는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벼모판종합영양제리용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켰다. 그리하여 올해 불리한 봄날씨조건에서도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하나같이 튼튼한 모를 길러낼수 있었다.

농촌들에서는 랭습지, 저습논, 초기생육 또는 후반기생육이 좋지 못한 논 등 저수확지들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농업근로자들은 여러가지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서해벌방농촌들에서는 랭습지, 저습논, 간석지논들에서 랭해와 저온피해, 뿌리썩음병 등을 막으며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내는데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또한 초기생육 또는 후반기생육이 좋지 못한 포전들에서 흙깔이 등에 의한 토지개량을 앞세우는 한편 이랑재배, 두둑재배를 비롯한 과학적인 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성과를 거두었다.

대용린, 카리, 규소비료를 생산하여 적극 리용하는것은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이다.

농업성에서는 올해 대용린, 카리, 규소비료생산 및 시비계획을 높이 세우고 도, 시, 군들에서 지난해말부터 그 준비사업을 강하게 내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각지에서는 대용린, 카리, 규소비료원료원천지를 적극 찾아내고 그것을 리용하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이것이 또한 올해 알곡생산량을 늘일수 있은 중요한 비결의 하나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과학농사를 튼튼히 담보해주기 위한 투쟁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깊이갈이를 하여 갈이바닥층을 깨는것은 과학농사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시, 군농기계작업소들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들춰갈이보습생산을 본격적으로 내밀어 봄갈이철전으로 끝냄으로써 농장들에서 짧은 기간에 깊이갈이를 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모내는기계의 성능과 뜨락또르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전국적인 농기계전시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은 종합적기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과학농사를 튼튼히 담보하려는 농업근로자들의 의지를 뚜렷이 과시한 중요한 계기였다.

우랭이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그 덕을 크게 본 염주군의 농촌들, 카리티탄비료, 후민산염 등 여러가지 대용비료를 생산하여 좋은 효과를 본 안악, 은파군의 농장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농촌들에서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참으로 뜻깊은 올해의 농업생산과정은 모든 영농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이 땅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나날이였다.

올해영농실천을 통하여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일떠선다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힘있게 확증하였다.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난 주체102(2013)년의 자랑찬 성과, 이것은 끝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며 온 나라에 인민의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리도록 하시기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결과이다. 하기에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때 점령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깊이 새겨안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본사기자 윤용호

감자농사혁명의 불길높이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제시 15돐을 맞이한 올해는 북부고산지대를 비롯한 감자생산지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감자농사혁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한번 뚜렷이 과시한 긍지높은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먹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방침입니다.》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한 감자생산지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힘찬 전투를 벌리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감자대풍을 이룩하여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제시 15돐을 빛내이려는 굳은 결의를 다진 1월의 그날로부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정신, 일본새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끝까지 빛내여나가려는 강의한 정신력의 분출이였다.

북방의 추위속에서도 거름생산이자 감자생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정보당 수십t의 거름을 포전들에 낸 대홍단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투쟁기풍은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다수확품종의 무비루스감자종자를 마련하여 감자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낸데서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또한 정보당 물거름을 20t씩 낼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많은 물거름을 생산하여 주었으며 북주기중경을 지난해보다 한주일이상 앞당겨 진행하여 이랑높이를 30㎝로 보장함으로써 랭해와 습해를 막고 봄철에 지속된 가물을 이겨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대홍단식과학농법의 요구대로 감자밭비배관리를 제철에 질적으로 진행하여 풍만한 결실을 마련하였다.

이 성과는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제시 15돐이 되는 올해에 감자생산에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도록 영농물자보장대책을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이런 투쟁의 불길은 삼지연군과 백암군을 비롯한 감자산지들에서도 세차게 타번졌다. 지난해보다 감자심기를 앞당겨 끝내고 감자밭가꾸기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여 훌륭한 결실을 마련한 자랑찬 성과는 일군들의 치밀한 작전과 이신작칙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올해는 대홍단식과학농법이 철저히 구현되여 크게 은을 낸 해이다. 자기 고장의 조건에 맞는 농사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북부고산지대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한알의 감자종자도 허실없이 싹을 틔워 심기 위해 애써 노력한 이들의 투쟁으로 감자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전망이 열리였다.

북부고산지대 감자산지들만이 아니다.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을 비롯한 각지 협동농장들에서도 자기 고장의 기후풍토에 맞는 종자와 재배방법을 적극 찾아내고 받아들여 앞그루감자농사에서 좋은 결실을 이룩하였다.

각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 감자농사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더듬어보며 다음해에도 감자농사혁명의 불길높이 포전마다 감자산을 높이 쌓을 열의에 넘쳐 농사차비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박철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두벌농사를 우리 농업의 주체적인 영농체계, 우리 식의 농법으로 확고히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올해는 당의 두벌농사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뜻깊은 해이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침땅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두벌농사에 앞선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두벌농사에서 겹재배도입면적이 훨씬 늘어났다.

황해남도에서 겹재배면적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도의 일군들은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두벌농사에 앞선 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였다. 특히 농업근로자들이 겹재배방법의 우월성과 그것을 받아들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정확히 알고 일해나가도록 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었다. 은천, 연안군을 비롯한 많은 군들에서 알곡 대 알곡겹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함경북도에서도 겹재배면적이 늘어났다. 도안의 많은 농장들에서 두줄모아심기에 의한 겹재배방법을 받아들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였다.

평안북도와 평안남도를 비롯한 다른 도들에서도 겹재배면적을 늘이였다. 결과 앞그루농사는 물론 뒤그루농사에서도 좋은 결실이 마련될수 있었다.

두벌농사의 과학화,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국의 본보기농장으로 내세워주신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앞선 영농기술,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들은 적지선정을 바로한데 기초하여 좋은 종자를 확보하고 품종배치를 과학적으로 하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두벌농사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확증된 종자를 선정한데 이어 두벌농사포전들에 질좋은 거름을 수십t씩 내고 앞그루감자심기를 적기에 하였다. 특히 그들은 논면적을 제외한 전면적의 밭에서 두벌농사를 하는데 맞게 비배관리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켰다.

연안군 읍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협동농장들에서도 감자종자싹틔우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한데 기초하여 논앞그루감자수확시기를 앞당길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농부산물을 가지고 성장촉진제와 살균, 살충작용까지 할수 있는 대용농약을 자체로 만들어 리용하였다.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 두벌농사에서 기어이 장훈을 부르기 위해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였다. 이들은 지난 시기의 경험을 살려 앞그루작물과 뒤그루작물의 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는 과학기술적인 방도를 찾고 그것을 실천에 구현하여 좋은 경험을 쌓았다.

지금 가을밀, 보리씨뿌리기를 적기에 끝낸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는 당의 두벌농사방침관철을 위한 길에서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가 차넘치고있다.

본사기자 주창일

중요영농공정수행에서 적기보장, 이것이 올해농사에서 거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성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에서 적기적작, 적지적작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사는 철을 놓치면 안된다.

이것을 명심한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영농공정인 모내기에서부터 적기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협동농장들에서는 10일동안에, 시, 군적으로는 20일동안에 모내기를 끝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나갔다.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평원군 원화협동농장과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모내기가 시작된데 이어 각지 농촌들에서 모내기를 적기에 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타올랐다. 특히 서해벌방농장포전들에 대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쳤다.

재령벌에서의 모내기전투과정을 돌이켜보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고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힘차게 떨쳐나선 벌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지난해보다 모내기를 앞당겨 끝냈다.

어김없이 보장된 적기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그 비결의 하나가 모내는기계의 가동률을 높인데 있었다. 모를 내야 할 면적이 많은 조건에서 일군들은 일정계획수행의 중요한 방도는 첫째도 둘째도 모내는기계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여기서 잘한것은 예비부속품을 넉넉히 마련해놓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운것이였다.

농장들에서는 기술전습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모내는기계운전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어 모내기시작부터 기대들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모내기적기보장을 위해 벌안의 농장들에서 마른논써레치기비중을 높인것 역시 주목되는 점이다. 마른논써레치기를 하니 그전보다 많은 기름을 절약하면서 수평고루기를 더 잘하여 모내기선행공정을 앞세울수 있게 되였다.

선진적이며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모기르기를 잘하여 모보장을 앞세우는 등 준비단계에서부터 승리의 담보를 마련해놓은 결과 농장들에서 모내기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게 되였다. 대용연료에 의한 모내는기계가동률을 높여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한 신천군 새길협동농장, 빈포기를 없애며 모내기의 질과 속도보장에서 군적으로 앞선 대렬에 선 재령군 삼지강, 북지협동농장…

동해지구를 비롯한 다른 농촌들에서도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일군들의 과학적인 경제조직사업이 안받침된 속에 모내기적기보장에서 성과가 이룩되였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기세는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였다. 각 도들에서는 올해농사를 지난해보다 빨리 결속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가을걷이도 낟알털기도 협동농장들에서는 10일동안에, 시, 군적으로는 20일동안에 끝내도록 하였다. 그 수행을 위해 일군들은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대중의 심장마다에서 집단적혁신창조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였다.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제철에 와닥닥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한 숙천군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소식이 들끓는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가운데 시, 군들에서 벼가을을 지난해보다 앞당겨 끝내고 련이어 낟알털기에 들어갔다. 도처의 농장포전들에 전에 없던 탈곡장들이 생겨나게 되였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자체로 만든 이동식탈곡기들을 리용하여 포전에서 낟알털기를 하였기때문이다.

전국적인 농기계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동식탈곡기를 만든 광천농장을 비롯하여 숙천군안의 농장들에서는 종전의 탈곡기들과 함께 이것을 리용하여 지난 시기보다 높은 낟알털기속도를 보장하였다.

이동식탈곡기를 대대적으로 만들어 리용한 평원군, 문덕군을 비롯한 평안남도의 시, 군들에서만 이런 자랑을 찾아볼수 있는것이 아니다.

본보기단위의 영예를 떨치며 혁신의 앞장에 선 사리원시 미곡,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해내여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였다.

본사기자 김성철

최고수확년도수준 돌파

온성군 읍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장일군들은 올해 랭해견딜성이 강하고 수확고가 높은 품종을 선택하는데 큰 힘을 넣는 한편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농장원들은 농작물의 생육상태를 보아가면서 비료시비를 기술적요구대로 하였다.

농장에서는 비료주기를 생육전반기와 후반기에 갈라 날자별로 하도록 하였다. 특히 모내기가 끝난 후에 주던 비료를 논갈이와 써레치기때에 밑비료로 주어 적기에 목표아지수를 보장하게 하였다.

농장일군들은 농약치기를 기술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농장원들은 농약치기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였다.

농장에서는 실정에 맞는 겹재배방법을 받아들이는데도 힘을 넣었다. 농장에서는 겹재배면적을 더욱 늘이면서 실정에 맞는 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였다. 이렇게 하여 농장에서는 올해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사기자 정성일

질좋은 천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순천직물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항구문화도시 원산시를 환하게 꾸려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원산시를 항구문화도시로 잘 꾸려야 합니다.》

원산시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모두가 떨쳐나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열렬한 향토애, 조국애를 지니고 거리와 마을, 일터와 가정을 훌륭하게 꾸리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에서는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을 위한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에 모두가 주인답게 떨쳐나서도록 조직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거리와 마을을 꾸리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시의 도시경영부문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꾸리기사업이 질적으로 수행되도록 기술적지도를 강화하고있다.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서 거리와 마을, 일터와 가정을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비롯한 령도업적단위들이 일터의 안팎을 더욱 알뜰하게 꾸려시적인 모범을 보이고있다.

봉춘동을 비롯한 시의 동, 인민반들에서 살림집건물들에 대한 외장재바르기를 질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특히 해방1동의 일군들과 주민들은 자기가 사는 마을을 제손으로 꾸릴 애국의 마음안고 서로 돕고 이끌며 마을과 가정을 위생문화적으로 깨끗하게 꾸려놓았다. 봉수지구의 주민들도 많은 면적에 보도블로크를 깔아놓아 거리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지금 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의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비약의 지름길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중화군 삼성협동농장 제5작업반 당세포에서

우리는 얼마전 중화군 삼성협동농장 2중3대혁명붉은기 제5작업반을 찾았다.

번듯하게 꾸려진 작업반의 공공건물들과 즐비하게 늘어선 살림집들, 시원히 펼쳐진 기계화포전들…

최근 이 작업반은 대중운동을 통하여 자기의 전투력을 높이 떨치고있다. 그가운데서 우리의 주목을 끈것은 올해 높아진 알곡생산목표수행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것이였다.

그러면 알곡증수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이곳 작업반 당세포사업을 통해 찾아보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결의목표를 잘 세우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올해초에 작업반당세포에서는 결의목표부터 잘 세웠다.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여 두벌농사포전에서 최고소출을 낼것.

이것은 작업반당세포에서 올해초에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새롭게 반영한 내용들중의 하나이다. 작업반의 실정에서 본다면 높은 목표라고 말할수 있다.

사실 지난 시기 작업반에서는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이후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알곡생산목표를 해마다 높이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왔었다. 작업반당세포에서는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더 높은 목표를 반영하고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그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결과 두벌농사면적이 훨씬 늘어났으며 나머지포전들도 모두가 여러가지 농작물을 심어 정보당 높은 소출을 내는 땅으로 되였다. 성과는 커만 갔다.

그만하면 다른 작업반에 비해볼 때 앞선 단위라고 말할수 있었다.

하지만 작업반초급일군들은 성과에 만족할수 없었다. 아직 당에서 바라는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은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더 큰 힘을 넣었다.

작업반장 김달성동무는 농업연구사 최순성동무와 농장기술일군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작업반에서 시험생산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종자문제도 해결할수 있게 하였다.

사실 새로운 품종의 작물을 작업반포전들에 도입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새로 연구한 품종을 도입하자고 하였을 때 모두의 생각은 일치하지 않았다. 일부 농장원들은 지금 하고있는 농사일도 힘에 부친데 파악이 없는 일까지 벌려놓으면 작업반의 한해농사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면서 머리를 흔들었던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 당세포비서 박명남동무는 작업반당원들과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답게 새로운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도 앞장서자. 우리 당원들이 기수가 되자. 알곡증수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에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고 올해 농업생산목표실현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는 당세포비서의 호소는 당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이렇게 되여 작업반에서는 새로운 품종의 작물을 심을수 있는 두벌농사면적을 큼직하게 잡았다. 이것은 곧 당세포결정으로 되였으며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보충결의목표에도 반영되였다.

그후 당세포에서 잘한것은 결의목표가 높이 세워진데 맞게 그 관철에로 당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든것이다.

우선 새로운 품종을 받아들이는 두벌농사인것만큼 선진영농방법과 그에 따르는 과학기술지식을 배워주는 사업을 중시하였다.

기술원 김두혁동무를 비롯한 초급일군당원들에게 알맞는 분공을 주어 기술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아침이면 기술학습을 진행한 다음 작업조직을 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일과로 되게 하였다.

거름실어내기를 할 때나 앞그루작물에 대한 가을걷이를 할 때를 비롯하여 두가지이상의 영농작업이 겹치는 바쁜 때에도 당세포에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포전기술학습을 참신하게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이 과정에 초급일군들이 기술학습의 기수가 된것은 물론이고 농장원들도 누구나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선진영농방법을 실천해나가는 능수로 준비되여갔다.

당세포에서는 한편 총화평가사업도 잘하여 농장원대중의 농업생산열의를 더욱 높여주었다. 긍정적인 소행이 날을 따라 늘어만 갔다. 당세포비서를 비롯한 작업반초급일군들이 늘 생산현장에서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긍정적소행을 찾아내고 전투속보에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영예의 혁신자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영예등록장에 등록하고 여러 계기를 리용하여 그들을 적극 내세워주면서 혁신자대렬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참신하게 벌렸다.

당세포에서는 분조장들인 윤대남, 윤옥숙, 림동철동무들을 발동하여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이 실지 농업생산실천에서 발양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본보기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이 큰 은을 내였다. 이나날 분조, 작업반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여 긴장하던 로력문제도 풀려나갔다.

그럴수록 당세포에서는 결의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벌려나갔다.

영농공정별전투마다에서 전례없던 성과가 확대되여갔다.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한 경험을 살려 1800여t의 질좋은 거름과 수백t의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 밭에 냈으며 영양강화제, 성장촉진제를 잎에 뿌려주고 개꼬리를 뽑아주는 등 앞선 영농방법들을 적극 도입하였다. …

이 과정에 작업반에서는 이미 진행하던 두벌농사면적에서는 물론 농업연구사와 농장기술일군들이 합심하여 연구한 품종을 가지고 새로 시작한 두벌농사면적에서도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었다.

결국 대중운동결의목표도 당세포결정도 수행하게 되였다.

올해 농업생산의 돌파구, 비약의 지름길은 이렇게 마련되였던것이다.

* *

지금 작업반에서는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한편으로는 밀, 보리심기가 끝난데 맞게 뜨락또르운전수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가을갈이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작업반의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누구나 다음해농사에서도 장훈을 부를 일념안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다. 또다시 새로운 방법의 두벌농사면적을 2.5배로 늘인것만 놓고도 다음해의 농사작황은 더 훌륭해질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이처럼 농촌당조직들에서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농업생산과 대중운동을 밀접히 결합시켜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불러일으킨다면 기적이 일어나 농업생산증수의 지름길이 열리게 될것이며 그것은 그대로 부강조국건설의 대통로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장철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한 인민보건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된 때로부터 60번째 년륜을 아로새기며 긍지높은 한해가 저물어가고있다.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보는 온 나라 보건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여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뜨겁게 물결치고있다. 그와 더불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받들어 인민보건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전례없는 성과들을 이룩한 긍지와 기쁨이 차넘치고있다.

인민보건의 미래를 꽃피워주신 어버이사랑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에만 하여도 보건부문사업과 관련한 수많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인민보건의 휘황한 미래를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기울여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자면 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인민적인 보건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국가의 의료상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1월 한겨울의 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대성산종합병원건설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원은 번듯하고 멋있게 꾸리는것과 함께 모든 요소들을 의료사업과 환자치료에 유리하게 꾸리는것이 중요하다는 뜻깊은 말씀을 남기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평양시의 중심에 아동병원과 구강병원을 건설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얻은 좋은 경험을 살려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건설할데 대해서와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것만큼 해당 부문에서는 지금부터 잡도리를 잘해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그후 궂은비내리는 지난 7월 몸소 아동병원과 구강병원건설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건설은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정당성을 시위하고 당의 보건정책을 옹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보건부문 일군들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앞으로 병원운영과 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수 있도록 혁명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후 완공을 앞둔 병원건설장들을 찾으시여 건설을 마무리하고 병원운영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도 제시해주시며 집중치료실의 치료조건을 더욱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과 함께 수술실들의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할수 있는 방도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병원의 위치와 주변환경에 맞게 그 이름까지 하나하나 지어주신 다심한 어버이사랑은 온 나라 보건일군들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어찌 새로 일떠서는 병원건설뿐이랴.

당의 보건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문제로부터 보건일군양성과 관련되는 문제들, 의학부문의 과학화, 정보화수준을 더욱 높여 보건사업에서 새로운 개선을 가져올데 대한 문제,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보건의 발전을 위하여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는 실로 헤아릴수 없다.

이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의 시기시기마다 인민보건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만복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자욱이 있어 인민보건사업에서는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거세찬 과학기술열풍, 만발해가는 정성의 화원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올해 보건부문에서는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먼거리의료봉사의 리용분야가 보다 확대되였다.

지난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먼거리의료봉사가 시작된데 맞게 보건성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의 먼거리수술지원체계를 개발하여 전국에 도입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먼거리수술지원체계는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을 충분히 고려한데 기초하여 상급병원의 유능한 외과전문가들이 아래단위의 수술환경과 조건을 원격으로 감시, 조종하면서 직접 수술지도를 줄수 있게 설계된 첨단의료봉사체계이다.

먼거리수술지원체계의 전국적 도입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인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크나큰 혜택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보건정책과 정보시대의 요구에 맞게 먼거리수술지원체계를 전국적범위에서 실현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돈이 있어야 최신의학과학기술의 덕을 입을수 있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먼거리의료봉사를 통하여 각지 근로자들과 의료일군들은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혜택의 참다운 향유자로 참된 삶을 누리게 하여주는 우리 당, 우리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임을 뜨겁게 새겨안았다.

먼거리의료봉사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 기술협의회에 참가하였던 수많은 외국의 벗들은 조선의 보건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저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해 과감히 돌진해나가는 의료일군들을 위해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통한 원격강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여 이 과정에 의료일군들의 림상기술이 한계단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학위학직소유자, 발명 및 창의고안자들의 대렬이 부쩍 늘어났다.

이밖에도 난치성질병치료를 위한 줄기세포기술이 확립되였으며 효능높은 3세대항생제를 개발한것을 비롯하여 보건부문에서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과학기술열풍이 세차게 일어났다.

올해에 열린 제15차 전국보건부문과학기술성과전시회는 나라의 의학과학기술을 한계단 끌어올리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전시회에 출품된 수많은 의학과학기술성과자료들은 나라의 의학과학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고 인민보건실천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올해 보건부문에서는 정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단위와 보건일군들의 소행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진행되였다.

지난 2월 사경에 처하였던 인민군군인을 소생시킨 황해남도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을 비롯하여 강원도인민병원, 자강도인민병원, 남포시인민병원 등 전국의 수많은 의료일군들이 일심대단결의 화원을 활짝 꽃피워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받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게 되였으며 이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각지에서 활기있게 벌어졌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과 김만유병원 등의 의료일군들이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에 달려나가 현장의료봉사활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보건일군들이 발휘한 고상한 인간애와 정성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전국각지에서 무수히 꽃펴나게 되였다.

올해에 수많은 근로자들에 대한 구강보철과 백내장수술의료봉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특히 경막외마취에 의한 정상산도무통해산이 산업병원계선에까지 확대되여 수많은 녀성근로자들이 선진의료봉사를 받는 자랑스러운 현실이 펼쳐졌다.

뿐만아니라 유선질병들을 조기적발하기 위한 정연한 체계가 세워진데 맞게 전국의 녀성들을 대상으로 검진 및 치료사업이 활기있게 진행되였다.

보건부문에서 타오른 정성의 불길과 과학기술열풍은 의료봉사사업의 질적수준을 한계단 더욱 높여주었으며 날로 늘어나는 우리 당의 고마운 인민적시책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믿음직하게 담보해주었다.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이라고 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위생방역부문 일군들도 위생선전과 예방접종 그리고 위생문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치였다.

김정숙료양소, 시중호료양소, 달천영예군인료양소를 비롯한 각지 광천료양소들에서 인민들에 대한 광천의료봉사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인민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긍지드높이 한해를 돌이켜보는 보건부문의 일군들과 우리 인민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사회주의보건제도가 굳건하며 인민의 건강이 담보되고 증진된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보건부문의 일군들은 앞으로도 당의 보건정책을 옹호하고 빛내여갈 드높은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김옥별

중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

과학적인 교수훈련지도방법을 도입

중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 재능있는 체육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감독들과 훈련지도일군들은 체육과학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훈련과 경기를 과학적으로 지도하여야 합니다.》

이곳 일군들과 지도교원들은 주체체육발전의 래일이 자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는 자각을 안고 체육선수후비육성에 불같은 열정을 기울이고있다. 이들은 래일의 금메달을 위해 오늘의 하루하루를 체육선수후비육성을 위한 밑거름으로 바쳐가고있다.

특히 교수훈련지도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기 위한데 큰 힘을 넣고있다.

계찬국, 홍기록동무를 비롯한 학교의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인 지도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교수훈련의 과학화사업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쯘히 갖추어놓고 과학적인 방법과 수단들을 훈련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고있다.

학교의 지도교원들은 체육선수후비육성을 맡은 자기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적인 교수훈련지도방법을 탐구도입하기 위하여 고심어린 사색을 거듭하고있다.

축구지도교원 박영수동무는 자신의 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사색하고 이악하게 노력하는 한편 교수훈련을 과학적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을 앞날의 유능한 축구선수로 키우는 사업에 앞장서고있다.

그는 학생들의 육체적능력과 심리적특성까지 구체적으로 파고든데 기초하여 과학적이고 효률높은 교육방법들을 수많이 탐구하여 훈련에 도입하고있다.

여러가지 직관물과 록화자료들을 배합한 원리적인 기초기술교육을 실속있게 짜고드는 과정에 그가 탐구도입한 축구기초기술교육과 함께 경기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을 밀접히 결부한 교수훈련지도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다.

리석준, 김경애동무를 비롯한 지도교원들도 여러 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전망있는 학생들을 찾아내는 한편 지혜와 열정을 합치며 학생들의 심리에 맞고 육체적부담을 적게 주면서도 기초기술수준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훈련방법들을 적극 탐구하여 도입하고있다.

학교에서 올해 제50차 전국청소년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의 녀자롱구, 바드민톤(남, 녀), 녀자력기, 예술체조경기들에서 영예의 우승을 쟁취한것을 비롯하여 최근년간에만도 재능있는 체육선수후비들을 많이 키워낸 비결은 이처럼 교수훈련의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큰 힘을 넣은데 있다.

오늘도 학교일군들과 지도교원들은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훌륭한 체육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것으로 이바지할 일념안고 선수후비양성사업에 모든것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전철호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전압주파수안정기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전기공학부 교원들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협동벌에 바쳐가는 지혜와 열정

천내군새기술보급소 실장 류기혜동무

천내군에는 로력혁신자들이 많다. 그들속에는 새기술보급소 실장 류기혜동무도 있다. 그는 올해에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여러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현실에 적극 도입일반화하여 나라의 쌀독을 채우는데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삶의 긍지와 보람은 결코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향락을 누리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창조와 투쟁속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어느날, 사색깊은 얼굴로 포전길을 걷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군당책임일군으로부터 효능높은 람조류생물활성퇴비를 하루빨리 생산에 받아들일데 대한 과업을 받은 류기혜동무였다.

람조류생물활성퇴비는 종전에 널리 리용하던 생물활성퇴비에 람조류균을 접종시킨것인데 만들기도 쉽고 경제적효과성이 대단히 높아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속에서 커다란 주목을 끌고있었다. 이 퇴비를 정보당 1t 내면 보통 유기질비료 15~20t 낸것과 맞먹는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벼 천알당 무게를 늘이는것은 물론 강냉이를 비롯한 밭작물에서 여러가지 해충의 피해와 간석지논에서의 소금기피해를 막는데도 특효가 있었다.

하지만 람조류생물활성퇴비 생산에서는 난문제가 있었다. 생산기일이 수십일간이나 걸리는것으로 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량을 생산하여 올해농사에 리용한다는것은 아름찬 일이 아닐수 없었다.

(당조직에서 받은 임무는 누구도 흥정할수 없는것이다. 내 힘으로 무조건 짧은 기간에 람조류생물활성퇴비를 생산할수 있는 기술적문제를 해결하리라.)

이렇게 결심한 그는 며칠밤을 새워가며 람조류생물활성퇴비생산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기술적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아나갔다.

류기혜동무는 먼저 생물활성퇴비생산에 쓰일 종균을 확대배양하는 전투를 벌리였다.

그에게는 시간이 귀중하였다. 자식을 가진 녀성으로서 힘에 부칠 때도 있었다. 날마다 새벽이면 남들보다 먼저 측정기구들을 마주해야 하였고 저녁이면 또 해당 연구사와의 련계밑에 질좋은 람조류생물활성퇴비생산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파악하느라 별을 이고 집으로 돌아오군 하였다. 그렇게 지새운 밤은 과연 그 얼마였던가.

이 나날 그는 군안의 모든 분조들에서 생산한 각종 유기질비료의 페하를 측정하였고 산도조절제를 기술적으로 섞어 질좋은 람조류생물활성퇴비를 만들도록 필요한 대책들도 세워주었다. 류기혜동무의 이렇듯 지칠줄 모르는 불같은 열정이 있어 여러달이 걸려야 생산할수 있다던 람조류생물활성퇴비를 이 군에서는 짧은 기간에 생산도입함으로써 정보당 알곡생산량을 늘일수 있었다.

이뿐이 아니였다. 지력을 높여 알곡증산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면 그는 지혜와 땀을 아끼지 않았다.

수십t의 티오균비료를 생산하여 모든 협동농장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 고농도린세균비료의 질과 량을 다같이 보장하여 논벼의 뿌리썩음병 예방…

이 군이 최근년간 많은 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여 유기농법실현에서 앞장선 단위로 되게 된것은 당의 농업정책 관철을 위해 늘 사색하고 이악하게 실천하여온 류기혜동무의 노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하나의 자그마한 싹이 자라나 무성한 아지를 펼치자면 그것을 받쳐주는 억센 줄기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한번 먹은 마음, 다진 맹세를 변치 않고 어려운 과학연구의 길을 그 어떤 동요도 없이 끝까지 가자면 신념이 있어야 한다. 류기혜동무에게 그 신념이 흔들리지 않도록 키잡이를 잘해준 사람이 바로 군당책임일군이였다.

늘 밝은 인상으로 시험포전에 찾아와 연구정형을 알아보는가 하면 미생물비료생산에 쓸 종균을 마련하기 위해 수백리 밤길도 서슴없이 다녀오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 어머니당일군,

하기에 오늘도 류기혜동무는 드높은 열정을 안고 보급소의 종업원들과 함께 다음해농사에 필요한 미생물비료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옥

진격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간다

함경북도마천령굴건설돌격대 정치부 일군들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대고조격전장마다에는 대오의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미더운 지휘관들이 수없이 많다. 함경북도마천령굴건설돌격대 정치부 일군들도 대고조시대가 자랑하는 전개력이 있고 실천력이 강한 일군들이다.

그들은 여러해전부터 돌격대원들과 함께 북방의 험준한 산발에 소문없이 애국의 구슬땀을 묻으며 조국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해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비록 힘이 들고 난관이 많다 하더라도 앞날을 생각하며 용감하게 돌진하는 일군이라야 신념이 있고 주체의 인생관이 선 일군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교통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사업이 함경북도에서 조직되던 때였다. 도당위원회 부부장으로 사업하던 김철호동무는 새로 조직되는 돌격대에 보내줄것을 제기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하였다.

험한 산발들이 키돋움하며 솟아있고 무성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우는 태고연한 산중에 첫 자욱을 새기던 날 그는 억센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랜 세월 물려온 험한 령길, 안개도 쉬여넘는 수백굽이의 령길에 영영 차단봉을 내리리라!

수수천년 잠자던 암반을 보란듯이 깨뜨리며 장쾌한 발파소리를 울려가는 돌격대원들의 앞장에도, 기운차게 광차를 밀어 깊은 골짜기에 버럭산을 쌓아가는 돌격대원들속에도 언제나 정치부일군들이 서있었다.

공사과정에 제일 큰 난관은 붕락이 많은것이였다. 단 100m도 붕락없이 지나온 구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공사가 얼마나 어려운 조건에서 벌어졌는가를 가늠할수 있다.

몇해전에 있은 일이다. 석수가 터져 애를 먹고있는 굴확장공사구간에서 엄청난 량의 버럭이 쏟아져내렸다. 붕락된 천정높이는 20여m, 아찔한 그 공간에 동발을 세우는 일은 비상한 각오가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이였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결사의 마당에 선참으로 나선 사람들이 정치일군들이였다. 그들은 초급일군들과 함께 동발나무를 그러안고 위험한 공간속에 남먼저 뛰여들었다. 정치일군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비상히 앙양시켰다. 그들은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 아찔한 공간에 동발을 세우는 전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솔선 어깨를 들이밀고 결사의 각오로 대오를 이끌어온 정치부일군들의 모습을 돌격대원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몇해전 아치콩크리트치기가 끝난 현장을 돌아보던 한 시공일군은 굴천정에서 자그마한 실금을 발견하였다. 천정의 균렬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그는 그만하면 허용할수 있지 않겠는가고 말하였다.

이때 정치부장 김철호동무의 벼락같은 웨침이 울렸다.

《안되오. 무조건 까고 다시 해야 하오.》

시공일군은 현재상태도 일없고 또 이제 2중천정까지 하게 되면 별일없을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김철호동무는 준절하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후대들이 우리의 일본새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는 먼저 함마자루를 틀어쥐였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실금조차 허용하지 않는 그의 마음을 읽으며 돌격대원들은 조국의 만년재부에 바쳐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량심이 얼마나 순결하여야 하는가를 더욱 뜨겁게 받아안게 되였다.

정치부일군들은 자기들이 하는 공사를 단순히 하나의 굴길을 열기 위한 전투로만 보지 않았다.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흐를 동굴을 마련하는 과정을 통하여 돌격대원들을 혁명적수령관이 투철한 신념의 강자,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는 열혈의 동지들로 더욱 억세게 키우려는것이 그들의 드팀없는 신조이다.

건설장을 찾는 사람들은 동굴입구에 큼직하게 새겨진 《장군님따라 천만리》라는 글발을 보게 된다. 정치부일군들이 돌격대원들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새긴 글발이다.

그 글발을 심장에 새겨안고 막냉이돌격대원이 어엿한 굴진공으로 자라났고 중학교를 갓 졸업한 단발머리처녀도 혁신자운전공이 되였다. 붕락의 위험도 주저없이 헤쳐가는 돌격대원들의 가슴속에도, 억수로 쏟아지는 석수속에서 함마와 정대로 암반을 뜯어내는 돌격대원들의 얼굴에도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길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일 억센 의지가 비껴있었다.

후방사업은 정치부일군들이 늘 관심하고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던 어느날 정치부일군인 최승호동무가 명천군돌격대를 찾은적이 있었다. 식당에 들려 돌격대원들의 밥량이며 반찬가지수도 알아보고난 그는 부업밭을 돌아보았다. 여러가지 남새들이 자라는 밭에는 김이 드문드문 보이였다. 그는 명천군돌격대 지휘관들에게 엄하게 말하였다.

—로력이 긴장하다고 하여 부업밭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후방사업이 곧 정치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때부터 그들은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게 되였으며 경쟁에서 우승의 영예도 지니게 되였다.

정치부장 김철호동무에 대한 돌격대원들의 추억에는 그의 강한 의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몇해전 그가 중병에 걸려 쓰러진적이 있었다. 평양의 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있던 그는 뜻밖에 많은 약재와 보약을 받게 되였다. 함경북도의 여러 시, 군들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성의있게 마련하여 보내준것들이였다. 사연깊은 약재와 보약을 눈물속에 받아안으며 그는 집단과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에 기어이 보답할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후 안정치료를 받으며 휴식하라는 사람들의 권고를 뿌리치고 공사장에 달려와 모진 병마와 싸우며 전투를 지휘하는 그의 강의한 모습을 보며 돌격대원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그의 병치료를 위해 왔던 한 녀의사가 《저런 불사조와 같은 사람을 처음 봅니다. 그를 침대에 붙들어둘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라고 쓴 쪽지를 남기고 눈물을 뿌리며 돌아간줄 아는 사람은 얼마 없다.

정치부일군들의 헌신적이고 량심적인 모습에서 돌격대원들은 그 어떤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성과 조국을 받드는 애국자의 자세를 배우고있다.

진격의 앞장에서 기발을 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정치일군들의 뒤를 따라 돌격대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위훈의 기념비를 세워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우간다전국녀성리사회대표단 도착

【평양 1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키라샤 파울린 대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간다전국녀성리사회대표단이 2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채춘희 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맞이하였다.

우리 처녀선동원

덕성탄광 5갱 안진옥동무를 두고 탄부들은 우리 처녀선동원이라고 정답게 부른다.

그는 늘 먼저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도맡아해놓는가 하면 작업의 휴식참에는 탄부들에게 노래도 불러주고 성의껏 마련한 간식들도 안겨주면서 그들을 고무해주고있다.

로농통신원 연전행

◎ 원군가정의 기쁨 ◎

함흥시 성천강구역 삼일동 36인민반 김영실녀성의 가정에 원군의 웃음꽃이 피였다.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줄 지성어린 원호물자를 마련하며 그들은 무엇을 속삭이는가.

《할머니, 나도 인민군대에 나가면 이런 원호물자를 받게 되겠지요?》

손자의 엉뚱한 물음에 김영실녀성이 의미깊은 어조로 말한다.

《온 나라 인민모두가 달려가는 원군길이 아니냐.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를 충정으로 받들려는 애국의 원군길은 앞으로도 끝없이 이어질게다.》

김영실녀성의 말을 듣는 자식들의 눈가에 원군길에 새겨진 추억깊은 자욱들이 어려오는듯싶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철령과 오성산의 칼벼랑을 넘으시며 우리 장군님 맞으시는 찬눈비가 그들의 가슴속에 피멍처럼 새겨졌었다. 하기에 장군님의 전선길을 마음속으로 따라서며 원군길에 자기들의 충정과 애국의 마음을 깡그리 바쳐왔다.

그러한 나날에 김영실녀성은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았고 지난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념사진까지 찍는 영광을 지니였다.

김영실녀성의 가정에 있는 부피두툼한 원군일지에는 이런 글이 씌여져있다.

《당의 선군령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원군길은 우리 가정이 대를 이어가야 할 량심과 의리의 길, 신념과 충정의 길이다.》

바로 이것이 원군가정의 애국의 가풍이며 더없는 행복이고 긍지인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신충혁

탄전을 들끓게 하는 경제선동

평안남도작가동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호소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작가동맹위원회의 작가들이 탄전들에 달려나가 탄부들을 석탄증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실은 작가들에게 있어서 지식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창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도작가동맹위원회의 모든 작가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들끓는 현실에 들어가 생산자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위원회당조직에서는 년초부터 작가들을 시, 군들과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주요단위들에 내보내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켰다.

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작가들이 탄부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발표하게 하였다. 요즘 작가들은 탄전에서 종자를 찾아쥐고 수십편의 서정시, 벽시, 단편소설, 실화문학을 창작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제남탄광 8갱에 나간 김순철, 박상민동무들은 탄부들의 생활을 깊이있게 체험하여야 생동한 작품을 쓸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갱막장에서 작품의 종자와 소재, 세부를 찾아내여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들은 《탄부의 손》, 《굴진공의 긍지》와 《석탄, 석탄을》, 《행복의 돌파구》를 비롯한 18편의 서정시와 벽시를 창작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이 쓴 시작품들을 방송선전차를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함으로써 탄부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켰다. 또한 탄부들의 실생활을 생동하게 형상한 작품들을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아래 갱막장들에 게시하여 탄부들의 앙양된 열의를 한층 고조시키였다.

작가 김광남, 현호철, 백명길동무들은 천성청년탄광 탄부들과 천성—성산천자연배수갱공사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의 영웅적기상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담은 여러편의 작품을 창작하여 해당 단위에 넘겨주었다. 작가 백명길동무는 벽시 《굴진공의 마음》을 창작하여 탄부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현실체험으로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로 내려간 작가 김상현, 윤상근동무들은 련합기업소일군들과 탄부들을 원형으로 하는 14편의 단편소설, 실화문학을 창작하였다. 그리고 작가 홍남수, 김성희동무들은 년초부터 련합기업소의 모든 탄광들을 돌아보면서 탄부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반영한 10여편의 단편소설과 실화문학을 완성하여 탄부들을 석탄증산에로 불러일으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명학탄광의 탄부들속에 들어간 작가 오광천동무와 안명국동무는 탄부에 대한 좋은 소재를 잡고 창작의 나래를 한껏 펼쳐나갔다.

이밖에도 작가 차명숙, 렴형미동무를 비롯한 위원회안의 작가들은 많은 지원물자들을 가지고 들끓는 탄광에 달려나가 탄부들에게 안겨주고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림으로써 탄전이 석탄증산으로 부글부글 끓게 하였다.

특파기자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운동의 근본리념

최근시기 대세의 흐름에 맞게 개선되여야 할 북남관계가 파국적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결과 전쟁의 극단에로 치닫고있다. 그것은 철두철미 남조선괴뢰들이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약한 조국통일원칙을 무시하고 《원칙고수론》을 내세우며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날뛴 필연적결과이다. 괴뢰들이 《원칙고수》의 간판밑에 벌려놓은것이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외세에게 반공화국공조를 구걸하며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은것뿐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괴뢰들이 고집하는 《원칙고수론》은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사대매국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거역하는 반통일전쟁론이며 북남간에 불신과 적대감만 증대시키는 극악한 동족대결론이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지향하는 온 민족의 요구에 전면배치되는 괴뢰들의 《원칙고수론》이 북남관계발전에 백해무익한것으로 내외의 규탄배격을 받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 민족에게는 북과 남이 확약하고 온 겨레가 절대적으로 지지찬동하는 공동의 조국통일원칙이 있다. 조국통일을 위해 북과 남이 다같이 준수하고 리행해야 할 근본원칙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리념이다. 21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진수인 우리민족끼리리념은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현시기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복잡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조국통일문제는 민족의 자주권실현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자기 민족문제를 자기 의사와 요구에 따라 처리하는것은 누구도 시비할수 없다. 민족자결권에 속하는 조국통일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여 해결한다는것은 말도 안된다. 침략적리익을 추구하는 외세가 민족문제에 끼여들어 가타부타 흥정하려드는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자주권침해행위이다. 우리 민족이 자주통일을 근본원칙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여기에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조국통일위업을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

북남공동선언에 의해 밝혀진 우리민족끼리리념은 철저한 민족자주의 리념이다. 그 거대한 생활력은 이미 6.15통일시대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뚜렷이 검증되였다. 북남관계에 우여곡절이 많은 속에서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있었기에 외세의 간섭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고야말려는 우리 겨레의 굳센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였다.

이를 무시하고 6.15이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에 대해 《북에 끌려다닌 관계》,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중상모독하면서 외세의 옷자락에 매달려 반공화국공조를 구걸하는 현 괴뢰집권세력의 망동은 초보적인 자주의식도 없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깡그리 팔아먹으면서도 부끄러워할줄 모르는 쓸개빠진자들의 추태이다. 북남관계를 우리민족끼리리념에 기초한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세우고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자면 외세의존에 명줄을 건 사대매국노들을 단호히 제거해버려야 한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을 고수하는것은 전쟁위험을 방지하고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에 의해 전쟁을 강요당하였으며 오늘까지도 항시적인 핵전쟁위협에 시달리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의 대결은 전쟁을 낳기마련이며 거기서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침략적인 외세뿐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고수하고 구현해나갈 때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평화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떨쳐나서면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으며 외세의 침략전쟁책동을 민족공동의 힘으로 짓부셔나갈수 있다. 그러나 민족의 평화통일념원은 우리민족끼리리념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의 북침야망실현의 돌격대가 되여 반공화국대결과 전쟁도발소동에 미쳐날뛰는 괴뢰패당의 반역행위로 말미암아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괴뢰패당이 얼토당토않게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합의는 북에 리용당한것이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창설하기로 한것은 북에 굴종한것이며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은 북에 《퍼주기》를 한것이라고 걸고드는것은 저들의 반평화적이며 동족대결적인 립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허튼 나발이다. 괴뢰들이 추구하는것은 오직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흉심밖에 없다.

《원칙고수론》에 매달린 그들의 도발적망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조선반도의 핵전쟁위험은 나날이 증대되고있다. 현실은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탈선하면 나라의 평화통일은 언제 가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국통일위업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대대로 한피줄을 이어온 민족의 공통성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능히 극복할수 있게 한다. 우리 민족은 고유한 민족성에 기초하여 얼마든지 단합도 통일도 이룩할수 있다. 민족의 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그것은 애국이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은 온 겨레에게 화해와 단합의 넓은 길을 열어주는 대단결리념이다.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대한 립장과 태도에 따라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이 갈라진다.

그러나 괴뢰들은 우리민족끼리정신을 공동으로 확약한것은 북의 전략에 말려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어대면서 북남공동선언의 리행과 련북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고있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시하면서 겨레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조국통일을 반대하는 민족반역자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최근 괴뢰들은 신성한 북남수뇌상봉담화록에까지 칼질하고 10.4선언리행과 관련한 계획을 전부 빼버린 대신 그 무슨 《핵문제》니, 《인권》문제니 하는 도발적인 내용을 쪼아박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것을 들고나와 류례없는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다. 그러면서도 그 무슨 《신뢰구축》을 떠드는것은 북남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리원칙을 부정하는 저들의 반역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집권전기간 북남선언들과 그에 의해 마련된 조국통일리념을 줴버리고 우리와 마지막까지 대결하려는 흉심을 드러낸것외 아무것도 아니다. 괴뢰집권세력이 반공화국대결론인 《원칙고수론》에 매달려 그 무엇을 얻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다. 그러한 망상이 북남관계에 몰아올것은 불신과 대결, 전쟁밖에 없다.

세계앞에 확약하고 온 겨레가 절대적으로 지지찬동하는 조국통일원칙을 감히 부정하거나 흐지부지하려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무사할수 없다.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에 도전하여 동족대결론을 고집하는 반역세력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온 겨레의 힘찬 투쟁에 의해 파멸을 당하게 될것이다.

박 철 준

인권유린왕초의 악랄한 도발소동

동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집권세력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도를 넘고있다. 얼마전 괴뢰패당은 유엔에서 외세와 함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모략적인 《북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하고 그 조작에 발벗고나서는 추태를 부렸다. 한편 결의안이 강압《통과》되자 《환영》이니, 《북인권법》의 《국회》통과를 성사시켜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부산을 피워대고있다. 이것은 체제대결야망의 뚜렷한 발로로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반공화국압살소동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비렬한 술책이다.

괴뢰들의 《인권》모략소동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해치기 위한 악랄한 수단의 하나로 되고있다. 지금까지 괴뢰패당은 허위와 날조, 모략으로 일관된 《북인권》문제를 여론화하여 우리의 존엄높은 영상을 흐려놓고 대내외적으로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발광해왔다. 얼마전에도 괴뢰당국은 유엔《인권특별보고관》과 미국무성 《인권특사》 등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를 모해하기 위한 꿍꿍이를 벌리였으며 그 무슨 《북인권보고》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국제기구들에 내돌리였다. 그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유엔에서 《북인권》이니 뭐니 하는 도발소동을 벌린것은 그들이 외세의 힘을 빌어 《인권》문제를 동족대결, 체제대결의 불순한 목적에 악용해보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괴뢰들이 이번 《결의안》조작과 관련하여 그 무슨 《환영》이니, 《국제사회가 북의 인권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있다느니, 《실태조사》니 하는따위의 망발을 늘어놓은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 인민대중의 존엄과 자주적권리가 최우선시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권》문제란 있을래야 있을수 없다. 우리의 모든 정책은 인민의 리상과 요구를 실현하는 원칙에서 세워지고 실현되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공인하고있다.

미국과 야합한 괴뢰들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은 미국의 식민지, 최악의 민주와 인권의 페허지대로 전락된 남조선의 진상을 감추고 반인민적악정으로 초래된 집권위기를 해소하며 민심의 불만을 딴데로 돌려보려는 가소로운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조장, 감행하고 그로 인하여 최악의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괴뢰패당이다. 남조선괴뢰들은 주제넘게 그 누구를 시비하기 전에 《유신》독재를 부활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참혹하게 말살하고있는 저들의 죄행부터 돌이켜보아야 한다. 더우기 괴뢰정보원과 반공화국인권모략단체들을 내몰아 우리 주민들을 백주에 3국에서 유인랍치하여 강제로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반인륜적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는 괴뢰패당은 애당초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입밖에 꺼낼 한쪼각의 체면도 없다.

국제적으로 규탄받아야 할 인권유린, 인신매매, 유인랍치의 원흉은 남조선괴뢰들이며 《인권》문제의 피고석에 앉아야 할 주범도 다름아닌 괴뢰패당이다.

괴뢰패당의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은 철두철미 우리 제도를 해치고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용납 못할 범죄적흉계의 산물로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격화,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은 북침합동군사연습에 짝지지 않는 극악한 도발이다. 남조선괴뢰들이 감행하고있는 《인권》모략소동은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북남관계를 전쟁의 문어구에로 더욱 바싹 몰아가고있다. 바로 여기에 괴뢰당국이 벌리고있는 반공화국인권소동의 엄중성이 있다.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우리의 존엄높은 제도를 털끝만치라도 모독하고 건드리는 행위에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징벌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혁명적기질이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괴뢰들에게 외세를 등에 업고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경고하였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 한피줄을 나눈 동족을 중상, 모함하고 해치려고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헤덤비는 대결미치광이들에게 차례질것은 종국적파멸뿐이다. 남조선괴뢰들은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심 철 영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지금 남조선에서는 심상치 않은 사태가 벌어지고있다.

남조선의 현 괴뢰집권패당은 《반공》을 부르짖으며 반독재민주화세력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던 과거의 《유신》파쑈악당들처럼 《종북》을 떠들어대며 진보민주세력의 씨를 말리겠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층이 지지하는 합법적인 정당, 단체들이 《불법》으로 매도되여 강제해산당하고있고 그에 소속된 성원들이 《친북세력》으로 몰리워 처형당하고있다.

그야말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무덤에 처박혔던 악명높은 《유신》의 망령이 빼젓이 되살아나 판을 치고있다.

남조선민심은 《유신》독재의 부활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지금 각계층이 매일같이 들고일어나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단식롱성과 시위, 집회들을 벌리면서 《유신독재부활반대》, 《공안탄압분쇄》, 《박근혜정권퇴진》을 목터지게 웨치고있다.

괴뢰패당의 강권과 폭정에 맞서 남조선의 녀성들도 정의와 민주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섰다.

현 괴뢰보수패당의 파쑈독재통치를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겠다는것이 바로 오늘의 격노한 남조선민심이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는 사회의 진보와 민주화를 위해 일떠선 진보민주세력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괴뢰패당의 반민주적폭거를 준렬히 규탄하며 이에 항거해나선 남조선녀성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돌이켜보면 《유신》독재의 극악하고 잔인한 파쑈폭압속에서 남조선의 어머니들이 뿌린 피눈물은 온 남조선땅을 다 적시고도 남았다.

파쑈의 형장에서 모진 고문과 악형으로 숨진 사랑하는 남편을 붙안고 민주의 새봄을 애타게 절규하기도 하였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제단에 서슴없이 청춘을 바친 아들딸들의 시신을 안고 결연히 항쟁의 거리에 나서기도 하였다.

어머니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

남조선녀성들이 가정의 울타리를 박차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섰기에 반독재항거의 불길은 더 세차게 타올랐으며 결국 서슬푸르던 《유신》파쑈독재는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말았다.

남조선의 수많은 어머니들의 가슴을 그처럼 아프게 허비며 피눈물을 강요하던 바로 그 《유신》독재가 또다시 되살아나게 되면 가정의 단란한 행복도, 자식들의 미래도, 사회의 민주화도 더이상 기대할수 없다.

더우기 단말마적으로 발악하는 파쑈무리들의 가혹한 폭압선풍앞에 주저한다면 남조선인민들이 수십년세월 피흘리며 투쟁하여온 보람을 다 잃게 될것이며 온갖 불의와 폭정이 판을 치는 숨막히는 암흑세상에서 인간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마저 다 빼앗기게 될것이다.

대세에 역행하고 민심을 등지는 파쑈독재는 결코 무사할수 없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의 광범한 녀성들이 사회적진보와 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일떠선 각계층과 굳게 손잡고 보수집권세력의 진보민주세력말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민주의 새 세상, 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설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주체102(2013)년 11월 25일
평 양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파쑈탄압을 당장 중지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에 접한 공화국북반부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파쑈탄압소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는 괴뢰패당을 단죄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는 목소리들이 계속 힘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세포등판건설 함경북도려단 정치부장 김혁철은 파쑈도당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있다. 독재의 피를 받은 《유신》의 후예들이 온갖 사기와 협잡으로 권력을 강탈하더니 이제는 서슬푸른 파쑈의 칼날을 빼들고 이리의 사나운 이발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집권하기 전에 외우던 그 무슨 《행복》이니, 《복지》니 하는 말마디들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세포등판을 사회주의 푸른 언덕으로 전변시켜가고있는 우리 돌격대원들은 파쑈광들의 악랄한 폭압만행에 끓어오르는 민족적의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괴뢰패당은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초불바다에 타버리지 않으려거든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파쑈탄압을 당장 걷어치우고 온갖 모략소동들을 중지하여야 한다. 불의가 정의를 교살하는 인류최악의 파쑈지대에서는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 생존권마저 지켜낼수 없다.

우리는 남조선의 모든 진보민주세력이 독재광들을 반대하여 굴함없이 싸워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굳게 믿으며 그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낸다.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리현영은 남조선에 살벌한 폭압정국을 조성하고 진보적인터네트신문인 《자주민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는 괴뢰패당의 파쑈적망동에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언론인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를길 없어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괴뢰패당은 지금 《자주민보》를 폐간시키는것으로 사실상 남조선에서 모든 진보적인 언론들에 자갈을 물리기 위한 말살작전의 서막을 열었다. 파쑈광들은 정의와 량심, 진실을 짓밟고 언론을 어용나팔수로 만들어 저들의 파쑈독재체제구축에 써먹으려고 그렇듯 비렬한 망동을 부리고있다. 괴뢰패당의 파쑈적횡포를 수수방관하면 남조선에서 언론의 공정성은 완전히 사라져 민심과 사회여론은 오도되고 지면과 화면, 방송에는 파쑈독재를 찬미하고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악담만이 차넘치게 될것이다.

우리 공화국북반부의 기자, 언론인들은 독재타도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애국의 필봉으로 적극 고무추동해나갈것이다.

평양건축종합대학 교원 김동숙은 괴뢰패당의 악랄한 전교조탄압책동을 준렬히 단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진보적인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파쑈도당에 대한 분노를 금할수 없다. 과연 전교조에 무슨 죄가 있는가. 그들은 불의가 정의를 매도하고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는 거꾸로 된 참혹한 남조선현실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어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를 위한 의로운 교육활동을 한것밖에 없다. 전교조의 합법성을 부정한자들이야말로 리성을 잃은 파쑈무뢰한들이다. 지금 당장에라도 서울에 달려나가 남녘동포형제들의 투쟁대렬에 뛰여들어 이 손으로 독재의 아성을 단숨에 무너뜨리고싶은 심정이다. 괴뢰패당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남조선인민들의 견결한 투쟁의지를 꺾지 못한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전교조를 말살하고 《유신》독재를 부활시키기 위해 피를 물고 파쑈탄압에 광분하는 괴뢰패당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 출현

남조선에서 정계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망라한 대중적단체인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국민동행)이 결성되였다.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지난 11월 17일 《국민동행》은 서울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창립선언을 발표하였다. 800여명의 발기인이 참가한 《국민동행》은 정계와 사회계 인사들, 종교인, 언론인 등 9명의 공동대표단을 선출하였다. 그들은 창립선언에서 현 괴뢰집권자의 《유신》독재부활책동을 비난하면서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및 민생복지 실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범국민적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히였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는 남조선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있는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전에 중앙정보부가 공작정치를 했는데 다시 부활되여 공안통치가 시작되는듯 한 우려》를 금할길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펼치겠다던 〈대통령〉과 정치권의 약속은 정파간 대결속에서 실종》되여버렸다고 개탄하였다.

민주당 대표와 정의당 대표 등 야당인사들과 안철수 무소속 《국회》의원이 창립대회에 참가하여 《국민동행》이 조직된것을 지지하였다.

민주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 거짓과 불통의 정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살려내야 한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힘을 모을수록 우리의 힘이 더 커질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국민동행〉과 함께 동행할것》이라고 밝히였다.

정의당 대표는 현 집권자가 권력기관의 불법선거개입에 의해 도움받은것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있으며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검찰관계자를 〈유신〉시대처럼 쫓아내고 정치적반대자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벌린다고 비난하면서 《반박근혜전선》을 이룩할것을 주장하였다.

무소속 안철수《국회》의원은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 〈정권〉탈취에만 관심을 두는 정치》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하면서 단체가 벌리는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피력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국민동행》이 이전 《정권》들에 관여하였던 《원로급인사들이 주축이 되여 조직된 범국민운동단체》라는데 주목하면서 사회 각계 대표들이 망라된 이 단체의 결성이 인민들의 반 《정부》투쟁기운을 더욱 고조시킬것으로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현 철

새로운 폭압선풍을 일으키려는 보수패당

남조선괴뢰패당이 우리의 인터네트홈페지에 가입한 혐의로 진보적정당, 단체에 대한 새로운 폭압선풍을 일으키려 하고있다.

20일 한 《국회》의원이 밝힌데 의하면 괴뢰패당은 우리의 인터네트홈페지인 《우리 민족끼리》에 가입하였다 하여 15명을 사법처리할것을 획책하고있다.

괴뢰패당은 그들이 《리적행위가능성이 있는자》라느니, 《체제전복세력으로밖에 볼수 없다.》느니 하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괴뢰패당은 국제해커범죄집단이 《우리 민족끼리》홈페지의 가입자명단을 공개하자마자 《북의 간첩》이요, 《종북세력》이요 하며 명단에 오른 진보적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선풍을 일으켰다. 그 하나로 최근 주요탄압목표로 삼고있는 통합진보당, 전국교직원로동조합의 관계자들과 성원들을 포함한 15명에게 폭압의 올가미를 씌우려 하고있다.

남조선에서 권력기관들의 선거개입행위의 진상이 나날이 드러나는데 바빠난 괴뢰패당은 여론의 주목을 어떻게 하나 다른데로 돌려볼 심산으로 진보세력에 대한 폭압에 더욱 무모하게 날뛰고있다.

남조선에서 어린이학대행위 증가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늘어나고있다.

19일 괴뢰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어린이학대건수가 6 400여건으로서 2011년에 비해 350여건이나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그중 가정에서의 어린이학대행위가 80%이상 차지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재미동포들 초불시위투쟁 전개

재미동포들이 남조선괴뢰패당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투쟁을 계속 전개하고있다.

15일 미국 뉴욕에서 초불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참가자들은 정보원만이 아닌 다수 권력기관들을 동원하여 협잡선거를 치른 남조선보수패당의 망동을 규탄하였다.

선거개입사건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기 위해 수사담당자들을 징계하고 전교조탄압과 통합진보당해산책동에 날뛰는 보수세력의 추태는 눈뜨고 볼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난하였다. 지어 국우세력이 재미동포들의 초불시위까지 방해하고있다고 하면서 그 배후에는 분명 정보원의 공작이 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16일 워싱톤에서도 재미동포들이 초불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박근혜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민주주의파괴주범 정보원을 해체하라!》, 《불법부정당선범 박근혜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남조선괴뢰패당의 불법행위를 폭로하였다.

비난과 조소만을 자아내는 사기극

지난 18일 남조선집권자는 괴뢰국회에서 집권후 첫 《시정연설》이라는것을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그 누구의 《변화》니, 《핵문제》니, 《무력도발위협》이니 하면서 무엄하게 우리를 걸고드는 체질적악습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면서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운운하며 또다시 신물나는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한바탕 력설해댔다. 나중에는 《신뢰》에 기초한 그 무슨 《경제협력》이니 뭐니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도 늘어놓았다.

그 누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대결보따리를 잔뜩 풀어헤치며 또다시 늘어놓은 잡소리들은 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제코도 못 씻어 조소와 비난만 받는 가련한 처지에 주제넘게 남의 일에 참견질하는 그 못된 악습이 되살아나고있는것이다.

하다면 괴뢰집권자가 도대체 첫 《시정연설》이라는데서 어떤 죽을 쑤었길래 남조선의 야당과 각계가 《대국민사기극》, 《책임전가의 극치》, 《지독한 불통연설》로 락인하고 지어 《새누리당》내에서까지 《맹탕연설》이라고 비난받으며 여론에 몰리우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이른바 《4대국정기조》에 대한 장광설, 자화자찬과 변명, 거짓공약만 잔뜩 늘어놓고 남조선정국을 진창속에 빠뜨린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을 비롯한 특대형관권부정선거와 사람들이 그처럼 관심하고있는 대규모빚더미예산편성, 《경제민주화》, 《기초년금제도입》과 같은 공약의 파기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그리고는 최근 야당들과 사회각계가 현 집권자가 립장을 밝힐것을 요구하고있는 부정선거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수는 없다고 오만하게 놀아대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받아들일것이라고 횡설수설하였다. 청와대의 거수기노릇을 하는 《새누리당》패거리들과 야당들사이에 얼마나 첨예한 대립과 의견상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있다.

이에 대하여 모를리 없는 괴뢰집권자가 동지섣달에 매화꽃이 피기를 바라는 식의 생주정을 부렸으니 야당의원들이 연설도중에 퇴장하고 《새누리당》내에서까지 기대하는것이 없다고 쓴입을 다실수밖에 없는것이다.

오죽하였으면 야당들이 괴뢰집권자가 떠나자마자 《국회》청사앞에서 《대통령연설은 신독재》라고 비난을 퍼부으며 《민주파괴, 민생파탄, 약속파기 규탄대회》를 열었겠는가. 규탄대회에서는 《말은 많았지만 쓸말이 없는 연설》, 《민중이 시정을 요구한것은 하나도 시정되지 않은 연설》이라는 규탄의 목소리들이 연방 터져나왔다.

야당들이 《공안통치의 신독재》를 민중도 야당도 용납할수 없다면서 《고강도 대여투쟁》을 벼르고있는 가운데 언론들은 현 괴뢰집권자가 《여야격돌의 새로운 불씨》를 심어놓았으며 《시정연설》로 정치권은 보다 가늠할길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들것이라고 일치하게 보도하고있다.

특히 현 괴뢰집권자가 연설에서 《복지》공약실현을 위해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그 무슨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것을 만들었다고 파렴치한 거짓말을 늘어놓은것이 여론의 더 큰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민주당은 이제는 민중앞에 맞대놓고 거짓말을 한다, 《또 하나의 거짓말복지》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인터네트들에는 괴뢰집권자가 연설을 한게 아니라 민중과 야당을 상대로 훈계를 했다,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뜬 구름만 잡았다, 거짓말복지에 서민만 죽어나겠다, 《대통령》의 불통이 걱정스럽다는 비난글들이 계속 쏟아져나오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괴뢰집권자의 《시정연설》로 정국이 더 꼬일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런 속에 연설이 있은 다음날인 19일 《새누리당》패거리들이 《여야상생》을 떠들었지만 《외눈박이놀음》이라는 야당들의 전면거부에 부딪쳐 《국회》가 완전마비상태에 빠졌다고 언론들은 전하고있다.

바빠난 《새누리당》패거리들이 괴뢰집권자의 첫 《시정연설》이라는것이 《정국파행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연설》이라고 비명을 지르고있다.

그렇듯 남조선의 정치판을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집권자가 그래도 입이 살았다고 뚱딴지같이 그 무슨 《도발》이니, 《핵문제》니, 《원칙》이니 하며 그 누구의 《변화》를 떠든것이야말로 소가 웃다 꾸레미터질 어리광대노릇이 아닐수 없다.

이런것을 가리켜 제 집 꿰진 창호지구멍으로 내다보며 남의 집대문을 흉질하는 어리석고 못난 처사라고 한다.

본사기자 리 효 진

파렴치한 미국을 단죄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파렴치한 미국을 단죄하였다.

단체들은 미국이 남조선인민들로부터 걷어들인 미군유지비중 불법축적한 액수가 1조원이상에 이르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이 더 많은 자금을 축적하기 위해 매번 미군유지비를 올릴것을 남조선당국에 강박하였으며 증액된 자금을 군사건설비항목으로 배정하군 하였다고 까밝혔다. 또한 축적한 유지비로 돈놀이하여 수천억원의 리자까지 얻었다고 비난하였다.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이루어진것만큼 남조선《정부》가 전액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2014년도 미군유지비로 1조원이상을 요구하는것은 이 땅의 민중을 업신여기고있기때문이라고 규탄하였다.

민중의 절대다수가 미군유지비를 동결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단체들은 《정부》가 불평등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자체를 페기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위인칭송의 열풍

날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서는 21세기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이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은 그이이시야말로 절세의 위인, 위대한 애국자이시라는것을 력사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진보적인류의 절절한 그리움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이 다가올수록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있다.

올해 10월에 들어와 세계 각지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회고하는 조직들이 결성된 사실은 그이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지난 10월 23일 베닌의 꼬또누에서는 김정일장군회고 베닌전국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베닌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 참가한 베닌 《김정일장군 만세》친목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의 사상리론들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고있다, 그이의 로작들은 철학적깊이와 심오성으로 하여 누구나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또한 어느것이나 다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고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고 있다, 그이의 로작들은 혁명과 건설의 총서, 대백과전서이다, 사상리론의 거장이신 김정일장군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이날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다채로운 사업들을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은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예지, 특출한 령도력, 강철의 의지에 의하여 사회주의조선은 세계만방에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자기 운명을 당당하게 개척해나가고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세계자주화위업과 사회주의운동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주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드시고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이 나라의 꼬또누기자대학 학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것은 김정일령도자의 구상이고 념원이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의 경제발전에서는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났다. 김정일령도자의 위업은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지난 10월말 스위스에서 김정일대원수님회고 스위스위원회결성식이 있었다.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한 결성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조선의 벗들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신봉자들은 조선인민과 함께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고있다.

김정일총비서께서 천만뜻밖에 서거하신것은 전체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최대의 손실로 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선포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으며 걸출한 국가령도자, 탁월한 군사전략가, 천재적인 사상리론가이시였다.

그이께서 펼치신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력한 핵보유국,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위용떨치고 있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우리는 그이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활동을 적극 벌릴것이다.

이보다 앞서 김정일대원수회고 나이제리아전국위원회가 아부쟈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이제리아인민민주당 신용위원회 위원인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투가, 부위원장으로 전 국회 하원 의장인 아군와 아나에크웨가, 서기장으로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알하싼 맴맨 무함마드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소개선전하기 위한 회고위원회들은 세계적판도에서 날을 따라 더욱 늘어나고있다.

얼마전 쿠웨이트시에서는 김정일대원수회고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한편 쓰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에서도 김정일동지 회고위원회가 결성되였다.

민주꽁고의 킨샤사에서 진행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회고 민주꽁고위원회 결성식에서 민주꽁고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머지않아 인류는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의 서거 2돐을 맞이하게 된다.

김정일령도자의 한평생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해 바쳐진 위대한 혁명가의 한생이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자주시대 지도사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여 정의와 진리를 위해 싸우는 혁명적인민들에게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을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로 하여금 주체사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착취와 억압이 없는 새 사회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시였다. 그이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세계자주화위업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우리는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걸출한 정치가이신 김정일대원수께 다함없는 경모심을 표시한다.

김정일대원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길, 자주의 길을 따라 진보적인류는 변함없이 전진할것이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회고하는 위원회들을 앞을 다투어 결성하면서 그이께서 인류와 함께 영생하실것을 념원하고있다.

김정일령도자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인도네시아 다양성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위원장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정일령도자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세계평화와 인류자주위업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인도네시아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실것이다.

몽골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김정일대원수께서 온 세계 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은 인류의 심장속에 길이 남아있을것이라고 하면서 그이의 혁명생애를 칭송하는것은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말하였다.

그렇다. 세계 진보적인류가 한결같이 말하듯이 세계 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오늘도 래일도 영생하실것이다.

국제김일성상리사회, 국제김정일상리사회 서기장인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을 더듬어보며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국해방을 위한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탄생하시여 조국수호의 참다운 의미를 일찍부터 체현하신 김정일장군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인민의 리익,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길에 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파도사나운 바다길도 헤치시고 험한 령도 넘으시며 인민군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다 찾아가시였다.

진정 김정일장군은 위기에 처했던 사회주의의 운명을 구원하시여 20세기를 빛나게 결속하신 절세의 위인, 인류의 태양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일이 다가올수록 그이를 추억하는 회고위원회들은 날을 따라 늘어나고 위인칭송의 목소리는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신경섭

절세의 위인에 대한 흠모와 격찬

세계혁명의 걸출한 령도자

어느해인가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찌또대통령은 일련의 국제정세와 두 나라사이의 문제와 관련한 자기의 견해를 표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은 자주성이 강한 나라이다. 그래서 나는 강한 자주정치를 펼치시는 조선의 김일성동지를 존경한다.》

찌또대통령은 정치가로서 명망이 높고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였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정치에 탄복했고 수령님을 세계혁명의 걸출한 령도자로 존경하였다.

만세 3창을 부른 정치국위원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해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을 방문하시였을 때 있은 일이다. 그때 쏘련측은 우리 나라를 쎄브에 끌어들이려고 이 문제를 정식 상정시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속심을 간파하시고 그것을 일축하시였다. 이때를 회상하여 쏘련공산당 정치국 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때에 조선이 쎄브에 들었다면 모름지기 고분고분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여 전원개폐기를 열번, 아니 백번은 더 꺼버렸을것이다. 쓰딸린동지가 서거한이래 쏘련은 정치적대가 센 수령을 만나지 못한탓에 사분오렬되고 있다.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고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선말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3창을 불렀다.

진보적인 나라를 가르는 기준

어느해인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온 한 언론계인사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뿔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무엇인가 깊은 생각을 더듬던 언론계인사는 위대한 수령님께 나라가 진보적인가 아닌가 하는것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문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물음을 들으시고 그 나라가 진보적인 나라인가 아닌가 하는것을 가르는 중요한 징표는 자주성을 견지하는가 견지하지 못하는가 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예속되여있으면 그런 나라는 결코 진보적인 나라라고 할수 없다고 단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언론계인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치였다.

(과시 김일성주석님은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본사기자

조선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담화를 22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 홍콩 봉황위성TV방송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은 담화를 통하여 남조선에 연평도패전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대변인은 연평도를 통채로 불바다로 만들어놓은 조선인민군의 서남전선군 장병들의 즉시적인 대응타격은 그가 누구이든 조선을 건드린다면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는것을 과시한 일대 쾌거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연평도포격전은 신성한 자주권과 존엄을 함부로 침해하는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타격전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박근혜와 그 패당은 연평도포격전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패전에서 뼈저린 교훈을 찾아야 한다.

괴뢰들이 또다시 도발을 걸어온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것이 서남전선군 장병들을 포함한 조선의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결심이다.

3년전에는 보복의 불세례가 연평도에 국한되였지만 이번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괴뢰들의 모든 본거지가 타격대상에 속하게 될것이다.

일단 무모한 도발이 재발된다면 연평도불바다가 청와대불바다로, 통일대전의 불바다로 이어지게 된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은 조선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이 담화를 통하여 연평도포격전은 남조선당국의 도발에 의해 일어난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변인은 조선인민군이 남조선의 도발행위에 대응하여 연평도를 불바다로 만들어놓았다고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대와 인민은 만일 또다시 남조선당국이 도발을 걸어온다면 자기의 모든 위력을 다 동원할것이라고 그는 경고하였다.

중국보도사와 일본의 교도통신, NHK방송, 미국의 VOA방송도 조선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담화를 보도하였다.

강력한 국가건설을 위해 노력할것을 언명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싸쥐 우말라또바가 16일에 진행된 당 제11차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강력한 국가건설을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로씨야를 붕괴,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속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꾸바 등 미국의 책동에 맞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나가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본보기로 삼아 로씨야를 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은 강력한 로씨야건설구상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는 당이 평화와 통일의 리념으로 사회와 인민들의 진정한 단합과 화목을 이룩하며 나라의 강국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지역의 평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호소

나이제리아외무담당 국무상이 18일 한 회의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폭력과 분쟁의 환경속에서는 결코 발전이 이룩될수 없으며 오히려 이미 이룩된 성과마저 무효로 만들어놓을수 있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들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엔인권결의안 배격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20일 자기 나라에 대한 유엔의 부당한 인권결의안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19일 유엔총회에서 이란의 인권침해에 관한 그 무슨 결의안이 채택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것은 서방나라들과 테로단체들의 웹싸이트에 실린 자료들에 기초한것이라고 까밝혔다.

이란정부는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는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유엔인권기구가 정치적목적을 추구하는 서방나라들의 손에 놀아나서는 안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지역형사재판소창설을 주장

에꽈도르검사총장이 18일 지역회의에서 남아메리카국가동맹의 부속기구로서 지역형사재판소를 내올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 재판소의 창설이 마약밀수와 자금세척 등 국경횡단범죄들을 막고 지역의 발전을 추동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군의 무인기공습만행

미군이 파키스탄인민들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반테로》의 미명하에 이 나라에 대한 무인기공습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21일 해버르 파크툰크와주상공에 날아든 미군무인기가 학교건물을 향해 4기의 미싸일을 발사하였다.

결과 교내에 있던 교원과 학생들을 포함하여 6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부상당하였다 한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풍력에네르기 리용

중국에서 풍력에네르기를 광범히 리용하고있다. 지난해 나라에서 새로 늘어난 풍력발전능력은 1 296만kW, 년간발전량은 1 004억kW·h에 달하였다. 풍력발전은 중국의 3대전력원천의 하나이라고 한다.

도로건설

이란의 부쉐르주에 새 도로가 건설되여 최근에 개통하였다.

길이가 6km이고 너비가 75m인 이 도로로 하루 평균 2만 4 000대의 자동차가 통과할수 있다고 한다.

이 나라 신문 《이란 뉴스》가 이에 대해 전하였다.

어린이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

우크라이나에서 어린이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사이에 5살미만 어린이사망률이 27% 감소되였다고 한다.

정부는 이 사업에 계속 관심을 돌려 2014년에는 어린이사망률을 2012년의 1 000명당 8.5명으로부터 6.5명까지 낮출 목표를 내세우고있다.

여러 나라들 협조

중국과 나미비아가 18일 경제, 기술적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와 아제르바이쟌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와 경제협조를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제4차 세계반도핑대회 진행

제4차 세계반도핑대회가 최근 남아프리카의 요한네스부르그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세계반도핑기구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각국의 정부와 반도핑기구 그리고 국제체육기구 관리들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도핑검사를 회피하고 특별히 규정되여있지 않은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조치를 담은 새로운 《세계반도핑조례》가 통과되였다.

그에 따라 선수들이 처음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기간이 종전의 2년으로부터 4년으로 늘어났으며 체육기구나 구락부는 선수가 처벌을 받는 기간에 그에게 훈련조건을 보장해줄수 없다.

조례는 또한 생물려권이라는 새 기술을 정식 인정하고 선수의 생물려권자료를 통해 얻은 결론에 기초하여 위법현상의 성립을 판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산화탄소를 재리용하는 기술 개발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회수하여 재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의 원리는 먼저 공기주입시 질소를 제거한 다음 석탄을 태운 후에 나오는 배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것이다. 배기가스를 특수한 흡수액과 반응시켜 이산화탄소를 효률적으로 회수할수 있는것이 새 기술의 우점이라고 한다. 질소는 비료공장에서 유용하게 쓰일수도 있고 혈암가스를 채취할 때도 리용된다. 또한 회수된 이산화탄소는 유전개발에 리용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미국 미싸일요격시험에서 실패

미국이 캘리포니아주의 싼 디에고앞바다에서 또 한차례의 미싸일요격시험을 벌렸으나 실패하고말았다. 19일 이지스구축함에서 발사된 요격미싸일이 목표미싸일은 맞히지 못하고 구축함만 파손시키고 2명의 부상자를 내였다고 한다.

심각한 방사능오염

일본에서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이 의연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도꾜전력회사는 17일 발전소 1호와 2호원자로의 취수구사이에 파놓은 관측용우물에서 채취한 지하수로부터 L당 2 100Bq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14일에 기록된 수치보다 27배이상이나 높아진것이라고 한다.

2013년세계그랜드선수권 보유자컵 녀자배구경기대회소식

2013년 세계그랜드선수권보유자컵 녀자배구경기대회가 12일부터 17일까지 일본의 도꾜와 나고야시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대회는 6개 팀이 참가하여 전련맹전의 방식으로 진행되였다.

브라질팀이 5승 0패의 성적으로 종합점수 15점을 받아 이번 대회 우승컵을 쟁취하였으며 이 팀의 파비아나 끌라우디노 선수는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조선중앙통신】

수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반대하는 미국시민들

《적》에 대한 개념을 통해 본 미국의 횡포성

미국은 해마다 《동맹관계유지》니, 《동반자관계형성》이니 뭐니 하며 대외관계확장을 위해 동분서주하고있다.

하다면 미국은 《벗》과 《적》가운데서 누구를 더 필요한 존재로 여기는가.

유감스럽게도 《벗》은 아니다. 미국은 《적수》를 더 필요로 하고있다.

오늘날 전세계를 대상으로 남몰래 감행하다가 폭로된 불법무법의 정탐행위는 미국이 적수를 찾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의 정탐대상에는 《동맹국》, 《동반자》라고 하는 나라들의 국가 및 정부지도자들도 포함되여있다. 미국이 무엇때문에 가깝다고 하는 나라 수반들까지도 정탐대상명단에 넣었는지 원인은 똑똑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리유가 어떻든 나타난 사실을 통해서 알수 있는것은 미국이 곁으로 《동맹국》, 《동반자》라고 하는 나라들을 적수로 여기고있다는것이다.

적수를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생존할수 없고 번영도 이룩할수 없는것이 미국이다.

미국은 다민족, 다인종국가이다. 력사와 문화, 전통과 생활방식이 서로 다른 민족, 인종들이 제가끔 모여사는 미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을 공감시키고 하나로 묶어세울만 한 리념이나 그 어떤 공통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민족과 인종들사이에는 여러가지 력사적원인들로 하여 모순과 갈등이 심하다.

미국에는 종교갈래도 많고 사상조류들도 잡다하다. 그러한것들은 사회적모순과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2011년에 발생하여 2012년에도 계속 벌어진 반월가시위, 올해 7월에 지머맨사건을 놓고 전국적규모에서 벌어진 흑인들의 집단적인 항의시위 등은 미국에서 사회적분배와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적문제들이 극복할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는것을 드러내보여주었다. 지머맨사건이란 지난해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길가던 10대의 흑인소년을 살해한 백인 죠지 지머맨을 주재판소가 무죄로 판결한것을 말한다.

미국사회는 날이 갈수록 우경화, 불균형화, 범죄화되여가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1970년 미사법장관 죤 미첼은 미국사회가 아주 은밀하고도 급속하게 우경화되여가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3K단과 미국자유련맹, 미국제일위원회, 《죤 버치》협회, 《티 파티》운동 등 인종증오와 배타적사상이 농후한 단체들이 활개치면서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미국사회의 우경화가 더욱 빨리 다그쳐진 배경에는 미국이 감행한 웰남전쟁과 캄보쟈, 라오스에 대한 침공, 쏘련에 대한 핵위협, 칠레에서의 정부전복음모실현, 국내인민들에 대한 감시강화, 행정부 관리들의 직권람용, 인종대립 등 복잡한 대내외문제점들이 있었다.

오늘 신보수주의자들을 지지하는 《티 파티》운동은 선거들에서 미공화당의 중요한 지지세력으로 되고있다.

형형색색의 인종과 세력들이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활개치면서 제리익만을 위해 눈에 피발이 서서 날뛰며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는 오가잡탕의 미국사회가 유지되는 길은 오직 적수를 찾아내고 그의 위협을 크게 하는것밖에 없다. 공동의 큰 적수가 나타나면 싸우던 사람들끼리 호상간의 모순을 일시 덮어두는것은 필연적인 심리현상이다. 미국은 폭발계선으로 치닫는 사회적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적수를 찾아내고 만들어내고있으며 그 위협을 과장날조하고있다.

적수를 계속 찾아내고 그 위협을 크게 하는것은 미군수독점재벌들의 요구이다.

미국경제는 전쟁경제, 군수경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 미국은 련합국들에 대한 무기와 군수물자의 공급지로서 군수산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미국독점자본가들앞에는 엄청나게 확장된 군수산업을 어떻게 유지할것인가 하는것이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였다. 당시 미군수생산위원회 부위원장이였던 제네랄 엘렉트릭회사 사장 챨즈 윌슨은 미국에는 전쟁경제가 영원히 필요하다고 떠벌였다. 미국은 군수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위협》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댔으며 《자유세계》를 수호한다는 간판밑에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고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랭전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이 《트루맨주의》였다.

1961년 1월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는 퇴임연설을 하면서 미국에 거대하고도 항구적인 군수산업이 구축되였다는것, 그 경제적, 정치적, 정신적인 영향은 시와 주의회, 련방정부의 모든 부서들에 미치고있다는것을 실토하였다.

적수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 위협을 증대시켜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켜야 팽창된 군수산업을 유지하고 미국이 생존할수 있다는것이 독점자본가들의 타산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항상 적수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

랭전말기에 미국이 《평화시대의 도래》에 대하여 요란스레 떠들 때 쏘련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한적이 있다.

《쏘련은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한셈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찾아헤매는 적수가 앞으로 완전히 없어지기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말은 미국을 잘 모르고 한 소리였다.

미국은 이미 새로운 적수를 점찍어놓고있었다. 미국의 희생물이 되여야 할 적수는 그 이후 사태가 보여주었다.

당시 미국대통령 부쉬1세는 이라크의 싸담 후쎄인과 그 정권에 대해 《또다른 히틀러의 도래》, 《현시대에 전례가 없는 가장 잔인한 정권》이라는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미국은 《이러한 정권을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고 공언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안있어 페르샤만전쟁이 일어났다.

원래 이라크는 미국의 《벗》이였다. 미국은 이란-이라크전쟁때 이라크를 적극 후원해주었다.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서슴없이 사용하였을 때에도 미국은 침묵을 지켰다.

원유문제를 둘러싸고 이라크와 쿠웨이트관계가 악화될 때 이라크주재 미국대사는 싸담 후쎄인에게 《부쉬대통령은 이라크와의 관계강화를 바라고있으며 국경분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을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미국의 지지로 곧이 받아들인 싸담 후쎄인정권은 쿠웨이트를 침공하였다. 이때라고 생각한 미국은 태도를 돌변하여 이라크를 원쑤로 규정하고 이 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하였던것이다. 1991년의 페르샤만전쟁은 이렇게 일어났다. 그 대가로 미국이 얻은것은 《유일초대국》이라는 이른바 《명예》였다. 그후 2003년에 미국은 이라크전쟁을 도발하였다.

이것은 흘러간 력사적사실이며 여러 영화나 도서와 같은 출판물들에서도 공개되고있다.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한 기록영화에도 이 력사적사실이 언급되였다.

미국은 한때 가깝게 사귀였던 《벗》도 이렇게 필요할 때에는 차던지고 《적수》로 상대한다.

미지배층이 《북조선위협》설을 집요하게 내돌리는것도 미국의 존망을 건 모험이다.

심각한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적모순이 격화되자 미국은 우리 나라의 《위협》나발을 더욱 요란하게 불어댔다. 조선반도정세가 극도로 악화되였던 올해 봄철에 록키드 마틴, 레이디온, 보잉을 비롯한 미군수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남조선의 무기시장에 뛰여들었다. 자료에 의하면 그때에 레이디온회사는 수억US$, 보잉회사는 16억US$에 달하는 무기판매계약을 남조선과 체결하였다.

력대적으로 미국은 세계무기판매순위에서 첫번째 자리를 다른 나라에 양보한적이 없다.

보다싶이 미국은 긴장격화와 전쟁, 침략과 략탈을 떠나 존재할수 없는 고약한 생리를 가진 나라이다. 그로 하여 여러 지역 정세가 완화되지 못하고있으며 세계인민들은 고통을 받고있다.

그러나 악의 제국은 절대로 오래갈수 없다. 미국의 운명에 락조가 비꼈다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미국은 인류앞에 저지른 죄악들로 하여 머지않아 값비싼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것이다.

리경수

ㄱ-31184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